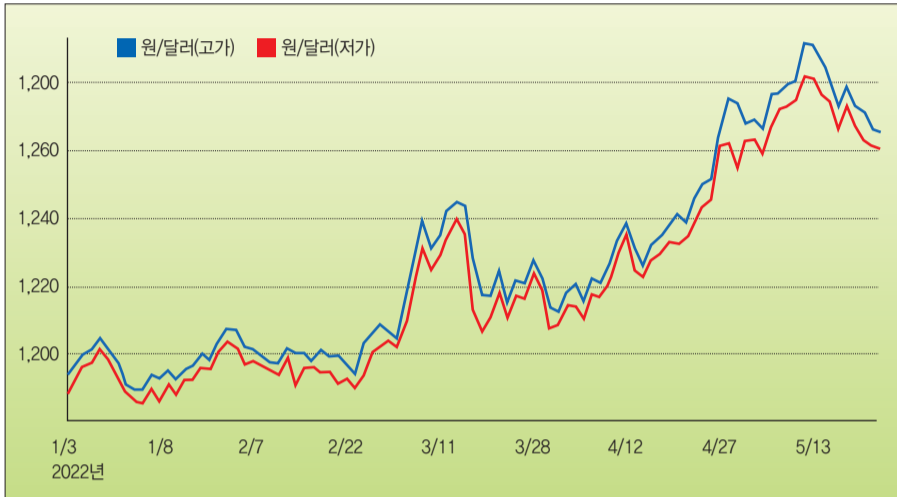


불확실성만큼 커진 외환 변동성... “환차손 막아라”

미리 환율 하락 대비하는 수출기업... 환변동보험 가입금액 6000억 원 돌파

■ 2022년 1~5월 외환시장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올해 상반기 장기화 중인 러·우 전쟁과 공급망 병목으로 식량난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주요국이 통화 긴축에 나서는 등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도 급변동 장세를 보이며 우리 무역업체가 이에 대응하는 손길도 분주해지고 있다.

연초 1200원 밑에서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 선 턱밑까지 왔다가 다시 12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원/달러는 장중 1254.8원까지 내려갔다가 1273.5원까지 뛰

어오르는 등 하루 동안 20원 가까이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5월 26일 미 연준 FOMC 회의록이 발표되고 한은 금통위 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60원대 중반으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이 7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미 경기 침체가 우려되며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환율이 상반기 연고점을 찍고 하반기 '우하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 급등에 시름 중인

수입기업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으나 수출기업에는 그렇지 않다. 현재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환율을 '고정'해서 수출거래를 하기 위해 환헤지를 시도하는 기업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

5월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누적 환변동보험 가입액은 작년 하반기 가입액인 5200억 원을 이미 넘어서 6000억 원을 기록했다. 무보는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의 선물환 거래가 여의치 않은 중소 수출기업에서는 환변동보험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환변동보험은 외화로 무역거래를 하는 국내기업이 미래에 발생할 외화 현금흐름의 환율을 가입 시점에 미리 고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역보험제도다.

시중은행의 선물환 상품과 달리 담보가 필요 없고, 최소금액 제한 없이 일반수출거래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환율을 고정할 수 있으며, 미 달러화뿐 아니라, 엔화·유로화·위안화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도 6개월 기준 0.020~0.035%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지자체에서도 환변동보험료를 지원해 우리 기업이 환율 걱정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0년 이상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장기이용

최신 무역정보와 다양한 서비스로 가득찬
글로벌 비즈니스 포털

KIT A.NET

기업 20곳을 조사한 결과, 무보 자체 신용등급 중 A~F까지의 정상신용등급 중에서도 D급 이상 비율이 85%로 전체 고객 중 비율인 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무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기업 재무·신용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했다.

오준범 무보 환위험관리팀장은 “환율 급등기에 고점을 예측해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낼 수 있다”며 “수출 초보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환헤지를 투기수단이 아닌, 영업 이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환율 불확실성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인 우리 수출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최근 1년간 환변동보험 이용 고객 수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고무적인 성과에 이어 앞으로도 환위험관리에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상하이 봉쇄 단계적 해제에... 컨테이너 운임 반등

상하이발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18주 만에 반등했다. 미주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에서 상승했다. 상하이 봉쇄가 일부 해제된 지난 5월 20일 글로벌 해상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14.86p 오른 4162.69를 기록했다.

SCFI는 지난해 12월 5000선을 넘어섰다 가 점차 하락했다. 최근에는 하락 폭을 점차 줄여가고 있다. 5주 전 35.01p 하락했지만, 전주에는 15.91p 내리는 데 그쳤다.

상하이발 해상운임은 미 서안행과 동안행 두 노선을 제외한 5개 전 노선에서 올랐다. 유럽노선은 1FEU(2TEU,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당 5862달러로 2달러 상승했다. 남미 노선은 56달러 오른 6309달러를 기록했다. 지중해노선은 6614달러로 13달러 올랐다.

호주·뉴질랜드행 노선은 1FEU당 3297달러로 15달러 상승했다. 중동 노선은 109달러 오른 2567달러를 기록하며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반면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은 7888달러로 전주 대비 12달러 하락했다. 미주 동안 노선은 전주와 같은 1만560달러를 기록했다.

업계는 중국 상하이시 봉쇄 해제가 해운 운임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상하이시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김영채 기자



아세안 10개국 대사와 미래 논의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5월 1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주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대사와 미래 협력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무협 구자열 회장과 이관섭 부회장을 비롯해 진출기업 대표와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10개국 대사가 참석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산업연구원 “최근 교역환경 악화...수출 전망 밝지 않아”

산업연구원은 최근 교역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향후 수출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최근 수출 호조의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4월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그 원인은 주로 코로나19 경기변동과 관련된 단기적 요인으로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회귀 시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세계 금융위기가 이후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수출은 장기간 부진했고, 특히 2014~2019년

에는 수출 증가율이 GDP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수출 부진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보호주의 추세, 미중 분쟁 등의 결과였다고 “이런 요인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미 4월 수출(잠정치)의 경우가 가격 요인을 제외한 수출 물량은 작년 동월보다 소폭 감소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향후 단기 교역 환경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도경 기자

관세청 “전국 세관서 공익관세사 무료 상담 받으세요”

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해 40명의 공익관세사를 위촉하고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에 나선다고 5월 26일 밝혔다. 이들 공익관세사는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15개 본부 및 지역세관에 배치돼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에 관세와 무역분야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공익관세사 제도를 통해 관세청은 그동안 3000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뿐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움을 받길 원하는 영세·중소기업은 전국세관 15개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에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경 기자

해외 신흥 유망 시장 진출, **코엑스**와 함께 하세요!

2022년도 코엑스 주최 해외 전시회

소비재

선물용품,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 패션액세서리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전시기간 2022. 6. 2 (목) ~ 5 (일)

장 소 SECC, 베트남 호치민



자카르타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전시기간 2022. 11. 10 (목) ~ 12 (토)

장 소 JCC,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영·유아용품

유아 및 아동용품, 교육, 장난감 등
영유아 관련 전 품목 및 서비스



호치민 베이비&키즈페어

전시기간 2022. 6. 2 (목) ~ 5 (일)

장 소 SECC,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베이비&키즈페어

전시기간 2022. 9. 22 (목) ~ 24 (일)

장 소 ICE, 베트남 하노이

프랜차이즈 / 식·음료

프랜차이즈 전품목, 리테일 매장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커피, 차, 베이커리, 원부재료, 디저트류, 장비/설비



베트남 리테일숍 및 프랜차이즈쇼

전시기간 2022. 11. 3 (목) ~ 5 (토)

장 소 SECC,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디저트&커피 엑스포

전시기간 2022. 11. 3 (목) ~ 5 (토)

장 소 SECC, 베트남 호치민

전력 / 기계

발전기자재, 송배전기자재,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베트남-한국 스마트전력에너지전

전시기간 2022. 7. 20 (목) ~ 22 (토)

장 소 SECC,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국제기계산업대전

전시기간 2023년 예정

장 소 SECC, 베트남 호치민

중국 봉쇄에 우리 기업 10곳 중 1곳 “사업 축소”

수출증감률 -3.7% · 생산 차질 평균 19.2일... 유턴 타진하기도 광둥·장쑤성으로 전면봉쇄 조치 확대되면 한국 GDP 0.26%p ↓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조치가 예상 이상으로 강하고 길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수록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시장 진출·수출 기업들에서 매출·수출액이 줄고 생산비용과 제품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 투자·거래 대기업을 상대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국내기업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봉쇄 전후 한 달간 매출액이 평균 4.0% 감소하고, 수출액도 3.7%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 중 69개 사는 생산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을 평균 2.8%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 봉쇄로 인한 기업의 생산일수 차질은 평균 19.2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3.8%는 중국의 도시 봉쇄가 기업 경영환경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4.3%,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9.5%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이유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원부자재 조달 차질(50.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바이어에 대한 납기 일차 지연(14.9%)', '일부 공장 봉쇄에 따른 다른 공장 운영 차질(13.6%)', '국내외 공장 가동 중단 또는 영업점 휴업(7.0%)', '비대면 경영활동에 따른 인력관리 곤란(6.6%)' 순이었다.

기업들은 중국의 도시 봉쇄에 대해 '원부자재 선구매 및 충분한 재고 확보(43.0%)', '부품 수급문제 해소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25.4%)', '비대면 근무환경 조성 및 활성화(7.0%)' 등으로 대응 중이다.

특히 도시 봉쇄 이후 생산비용이 증가했다는 기업은 원부자재를 1개월 이상 확보하고 있다는 기업이 47.9%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1~2개월'이 30.4%로 가장 많았고 '2~6개월' 14.5%, '6개월 이상' 3.0%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응답 기업 중 21.5%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생산비용 증가 기업 중 30.4%는 '원부자재를 확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업 대부분에서 중국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응답 기업 중 11.7%는 도시 봉쇄 등 산업 환경 변화 상황에서 '중국 사업장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리쇼어링, 즉 '사업장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의견도 1.0% 나왔다.

중국의 도시 봉쇄 대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중국 내 물류 원활화를 위한 지원 강화(39.2%)'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국의 도시 봉쇄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및 공유(35.6%)', '중국진출 기업인의 생활안전 확보(9.4%)', '주재원과 가족 귀국을 위한 항공편의 제공(6.8%)' 등 순이었다.

●“중국 봉쇄조치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에 악영향” = 이처럼 우리 기업들이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쉽게 제로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하지 않으리라는 전망은 우리 경제에 드리우는 암운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중국 당국이 상하이 봉쇄를 6월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베이징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서 봉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출입상회는 주요 도시 봉

쇄 여파가 적어도 올해 2분기까지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경제지 <블룸버그>는 5월 24일 보도를 통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봉쇄를 위시한 제로코로나 정책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중국경제 성장전망치를 잇달아 하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3%에서 3.7%로, UBS는 4.2%에서 3.0%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6%를 2%로 내렸다. 스탠다드차타드(4.1%), 골드만삭스(4%), 시티(4.2%) 등 대부분의 투자은행이 중국 정부가 공식 성장률 목표치(5.5%)에

대중 수출은 물론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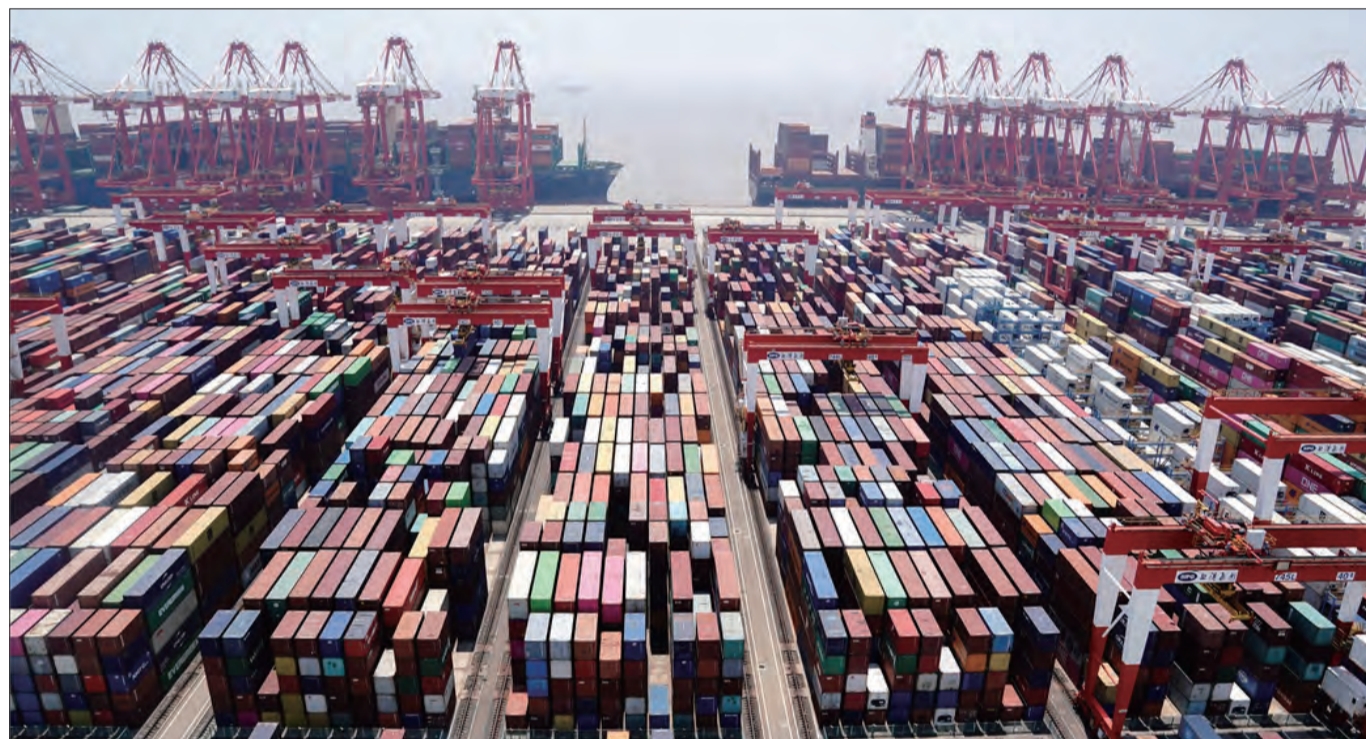
연구원이 현실적인 봉쇄 시나리오 중 하나인 '중국 GDP 30% 해당 지역에 대한 8주 전면봉쇄를 가정했을 때,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4%p 하락하고 이로 인해 한국의 GDP 성장률도 0.26%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중국이 봉쇄조치를 내린 곳은 상하이와 베이징으로 두 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한다. 봉쇄지역의 경제비중이 10% 수준일 때, 전면봉쇄 기간에 따라 중국 GDP는 0.85%p(6주)~1.4%p(10주) 하락하고,

다만 이는 중국 현지 최종수요 감소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기에 공급망 교란과 물류 대란 심화 등 공급 측면 요인들을 더해 고려하면 추산되는 악영향도 더욱 커질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 주요 도시를 봉쇄하는 제로코로나 조치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공산당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가운데, 적어도 시진핑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20차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까지는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인구당 의료인력은 주요국



지난 5월 17일 봉쇄가 여전한 상하이의 동부 양산 심해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이 자동화 처리되고 있다. 엄격한 봉쇄를 내세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장기화로 글로벌 금융투자기관들은 중국경제 성장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다. [사진=신화/뉴시스]

도달하지 못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UBS는 중국경제 성장전망 하향에 대해 "계속되는 봉쇄조치와 코로나 정책의 출구 전략에 대한 명확성 부족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신뢰가 약화하고 억눌린 수요의 방출이 저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JP모건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율과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낮은 효능을 고려하면 중국이 집단면역을 감내하거나 면역 효과가 더 좋은 백신을 도입하지 않는 한 고강도 봉쇄가 계속 필요할 것"이라며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와 오미크론 확산 용인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조치는 ▷공급망 교란 악화 ▷물류 정체 가속화 ▷현지시장 수요 감소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2020년 기준 중국의 최종수요가 한국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한 비중은 7.5%로 해외 국가 중에서 가장 컸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봉쇄조치를 내리고 이로 인해 수입수요가 감소하면 한국의

기업 대부분에서 중국 사업을 유지하겠다(87.3%)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응답 기업 중 11.7%는 도시 봉쇄 등 산업 환경 변화 상황에서 '중국 사업장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이로 인한 한국 GDP 성장률은 0.06%p(6주)~0.11%p(10주)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광둥(중국 GDP의 10.9%)과 장쑤(10.1%) 등까지 봉쇄가 확대되면 봉쇄지역의 경제비중은 중국 전체의 30%에 육박하게 된다. 이 경우 봉쇄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의 GDP 성장률 타격은 최소 0.05%p(6주 부분봉쇄)에서 최대 0.32%p(10주 전면봉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8주 전면봉쇄를 가정하면 한국 GDP 성장률은 0.26%p 하락하고, 제조산업별로는 전 기장비(0.08%p), 화학(0.024%p), 기초·가공금속(0.016%p) 순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의 30%에 불과하고, 중환자 병상 수도 인구 10만 명당 3.6개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낮은 감염률로 오히려 여타국처럼 자연 면역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효과가 mRNA 방식 백신에 비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그만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 내 오미크론의 통제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봉쇄조치로 야기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러한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더욱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병선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기조는 성장전략의 전환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다"면서 "중국의 질적 성장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우리 기업들도 진출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채 기자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포스트 코로나에도 해외마케팅은 EC21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기대하며,
EC21이 귀사의 온라인 해외마케팅을
응원합니다

수출상품등록, 해외 바이어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온라인 무역 서비스를 EC21에서 만나세요.



해외에서 더 유명한
B2B 마켓플레이스



전세계 235개국의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



700만 수출상품
250만 바이어 정보가
모두 이곳에 www.ec21.com

“작년 수출기업 수 소폭 줄고 수출액 대폭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기업 수가 9만4615개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데 비해 수출금액은 2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으로 수출 없이 수입만 하는 기업은 8.8% 증가해 최근의 고통을·고물가 압박에 취약한 기업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청이 5월 24일 발표한 ‘2021년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 수는 대기업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875개사, 중견기업은 0.9% 증가한 2227개사, 중소기업은 2.6% 감소한 9만1513개사로 모두 9만4615개사다. 이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수출액은 대기업이 전년 대비 29.5% 증가한 4158억 달러, 중견기업이 22.3% 증가한 1138억 달러, 중소기업이 17% 증가한 1135억 달러 등 총 64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금액은 전년보다 25.8%가 증가했다. 대기업의 자본재와 원자재 수출이 각 23.2%, 49.2% 증가하면서 수출액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대기업의 국가별 수출입액 분석에서는 수출의 경우 중국이 1084억 달러로 전년보다 22.3%, 미국은 648달러로 34.3%가 각 증가했고 수입액은 중국이 5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9%가 늘었으며 미국은 452억 달러로 36.7%가 증가했다.

수입기업 수는 대기업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1221개, 중견기업은 2.0% 증가한 2744개, 중소기업은 5.5% 증가한 20만 5674개 등으로 모두 20만9639개다. 전년보다 5.4% 증가한 수치다. 수입기업 수가 수출기업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은데 그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수입액도 대기업이 전년 대비

관세청 통계... 작년 대러시아 수출의존도는 1.5%
‘수출만 하는 기업’ 줄고 ‘수입만 하는 기업’ 급증
미·중·일·EU와 동남아에 전체 수출액 80% 의존

37.3%가 증가한 3576억 달러, 중견기업 29.8% 증가한 1012억 달러, 중소기업 21.0% 증가한 1473억 달러 등 6060억 달러로 전체로는 31.7% 증가했다. 또한, 전체 기업의 평균 수출품목 수가 6.0개로 전년보다 2.9% 증가하는 동안 평균 수입품목 수는 8.4개로 3.6% 증가했다.

수출금액 증가 폭보다 수입금액 증가 폭이 더 큰 데다가 수출기업 수가 줄어든 데 반해 수입기업 수는 늘어난 셈이다. 심지어 수출을 겸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입만 하는 기업은 15만5363개사로 지난해 대비 8.8% 증가했다. 반면 수입을 겸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출만 하는 기업은 4만339개사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수입물가 압박이 더 강해지며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수입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전년(35.3%)보다 증가한 35.5%, 상위 100대 기업은 전년(63.1%)보다 증가한 65.2%를 각 차지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전년(26.7%)보다 증가한 28.9%, 상위 100대 기업은 전년(52.0%)보다 증가한 54.9%로 나타나 무역편중도가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수입액은 3944억 달러로 37.9%나 증가했다.

반면 10개국 미만과 교역하는 수출기업 수는 8만6624개로 전년보다 2.9%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1030억 달러로 17.1% 증가했다. 10개국 미만과 교역하는 수입기업은 20만1254개로 전년보다 5.4%, 수입액은 1372억 달러로 26.5%가 늘었다.

작년 우리 수출은 권역별로는 동남아시아(26.5%) 시장에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였으며, 단일 국가로는 중국(25.3%)에 가장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미국과 EU 27개국을 합한 의존도(24.8%)도 이에 못지않았다. 이제는 단절되다시피 한 러시아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작년에 1.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강도가 높은 기업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 수는 2만5954개로 전년보다 0.2% 증가했고 이들의 수출액은 2848억 달러로 집계됐다.

20개국 이상의 다양한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은 2952개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이들의 수출액은 4539억 달러로 24.0%가 늘었다. 수입처가 20개국 이상인 기업의 수는 1890개로 전년보다 8.1% 늘었으며,



일본에서 K-뷰티 콜렉션 KOTRA와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5월 25일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K-뷰티 프리미엄 콜렉션' 입점 판촉전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개막행사에서 기념 촬영하는 노리마쓰 가오루 미르게이트 대표, 박선철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 남우석 KOTRA 나고야무역관장, 사토 호다카 아마노 사업총괄본부장. 【사진-KOTRA 제공】

“우리나라도 우회덤핑 방지 규정 도입해야”

무역협회 ‘무역구제제도’ 세미나... 선진국들 대부분 시행 중

“우리나라도 우회덤핑 방지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5월 20일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무역구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및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세션에서는 우회덤핑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보세공장을 통한 반덤핑조치

우회 문제와 대응 등 2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우회덤핑이란 외국 수출자가 수입국의 반덤핑 조치를 피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총 63건의 우회덤핑 조사가 수행됐으나 우리나라 현행 관세법에서는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홍익대학교 강준하 교수는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

이 없어 우회행위 발생 시 새로운 원심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면서 “미국, EU, 인도 등 주요국의 우회덤핑 규정 도입 및 재정비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세공장 반덤핑 우회 문제에 대해 발표한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품을 수입해 보세공장에서 가공, 제작 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덤핑관세 회피가 가능하다”면서 “이는 국내 반덤핑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반덤핑·상계관

세 조치를 우회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우회행위 관련 규범은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으로 우회구제를 시행해 왔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인도·호주·캐나다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세계 각지의 무역구제조치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무역구제제도도 우리 기업들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 재점검 및 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채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20일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무협,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와 진출사례 웨비나’ 개최

미국 시장에 집중돼있던 우리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이 유럽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5월 24일 개최한 ‘유럽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진출사례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이 유럽 스타트업 동향과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유럽 진출사례를 소개했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매니저는 “베를린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그린산업이 집중돼있는 데다 유럽 경제강국의 수도로 대기업과의 협력이 쉽다”면서 “또한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가장 높은 국가로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유치 전략이

돌보이는 시장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코리아이노베이션센터(KIC) 유럽의 황종운 센터장도 “영국과 베를린 VC들이 유럽 내 초기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베를린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면서 “앞으로 유럽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감형 메타버스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머시브캐스트의 정광일 이사는 “베를린에서의 성공이 유럽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미국 시장보다 경쟁이 적다는 점에서 베를린을 진출 교두보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함께 지킬 때 진정한 상생이 이루어집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는
인권, 고용, 환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이의신청사건의 주선을 제공하여 기업의 문제해결을 지원합니다.
함께 지키면 모두에게 힘이 되는 가이드라인, 한국NCP가 함께합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기업의 모범적인 행동규범,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입니다.

정보공개 / 인권 / 고용 / 환경 / 뇌물 /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 공정경쟁 / 조세 등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한국NCP사무국 전화 (02)551-2046 | 팩스 (02)551-2020 | 홈페이지 www.ncp.or.kr

항공 물동량 3월부터 감소... 화물기로 돌렸던 여객기 복원

지난해 국제선 화물처리량 기준 세계 2위 달성을 4월까지 104만9181t... 전년보다 1.6% 줄어 중국 봉쇄 조치에 우크라 침공... 유럽노선 감소 대형항공사 항공기, 여객→화물→여객으로 복원

코로나19 확산에도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던 국제선 항공화물 물동량이 올 3월부터 감소세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국제선 항공화물은 코로나19의 악화에도 지난해 다른 세계 3대 공항인 홍콩 공항과 상하이 푸둥공항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18.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국제선 화물처리 기준 세계 2위를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럽 등 주요 해외노선 운항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화물 물동량은 총 104만9181t으로 전년 같은 기간 106만6302t과 비교해 1.6% 감소했다. 월별로는 ▷1월 26만9154t(전년 대비 3.11%) ▷2월 23만7394t(0.01%) ▷3월 28만1551t(-2.24%) ▷4월 26만1082t(-

6.73%)으로 올해 3월부터 항공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물동량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14만t으로 전년 대비 -0.8%와 -2.5%가 감소했다. 또한, 지난달 수출과 수입 물동량은 각각 13만t으로 5.8%와 6%가 감소했다.

이 기간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전자제품과 화학약품, 자동차 및 부품, 철강제품 등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기계·전자제품과 유류, 섬유의류, 철강제품, 곡물류 등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선 화물기 운항편은 총 6968편으로 전년 같은 기간 8002편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화물기 운항 감소에 따라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던 국내 대형항공사들이 다시 화물기를 여객기로 복원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를 완화하면서 국제선 수요도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4일과 11일, 22일 등 3일에 걸쳐 화물 전용기로 사용했던 A330-300 6대 중 3대에 대해 좌석을 재장착해 여객기로 전환했다. 화물기에서 재전환된 여객기는 동남아시아 노선 위주로 투입된다.

아시아나 항공도 지난 20일 A350의 화물기에 다시 좌석을 장착하는 등 여객기로 원상 복원하는 개조 작업을 마쳤다. 이번에 복원된 A350 여객기는 내달부터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투입하게 된다.

아시아나는 지난 2020년 9월 전 세계 항공사 최초로 A350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23t의 화물 탑재가 가능한 화물기로 탈바꿈했다. 이후 항공화물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총 7대(A350 4대, A330 3대)의 여객기를 화물 전용으로 활용해 추가로 5만t의 화물을 수송해 약 2800억 원의 화물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인천=뉴시스



쉽 없는 부산항 5월 23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외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86억1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1% 증가했다. 수입액은 434억4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48억2700만달러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4억25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부산=연합뉴스】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6월 초 다시 뜬다

내달부터 한일 양국 수도의 관문공항 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된다.

한국항공공사는 6월부터 김포~하네다 공항의 노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일본 정부와 세부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내달 운항되는 김포~하네다 노선에는 한일 양국 국적의 대형항공사가 주8회(16편) 운항을 시작한다.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가 담당한다. 앞서 김포~하네다 노선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양국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바 있다.

공사는 양국의 방역상황에 따라 이르면 6월 1일에서 8일 사이에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김포~하네다노선이 이르면 내달 1일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일본 자민당 내 이견이 약간 있어서 시기는 조금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하네다 노선이 재개가 예상되면서 내달 김해와 제주, 대구, 양양공항 등의 국제선도 재개된다. 공사는 내달 5개 공항 22개 노선이 주 68회 136편의 항공기가 운항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하네다 노선 외에도 김해공항에서는 괌, 사이판, 후쿠오카, 방콕, 싱가포르, 세부 등 13개 노선이 주 38회(76편)가 운항된다. 제주국제공항에서도 싱가포르와 태국 방콕 노선이 주 5회(10편) 오고 갈 예정이다.

대구공항에서도 중국 연길과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필리핀 세부 노선이 주 13회 운항되고, 양양공항에서도 방콕과 필리핀 클락 노선이 주 4회 운항된다. 이도경 기자

중국산 미용품 국산으로 속여 수출, 업체 적발

중국산 미용용품 1000만 점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미용용품 업체 A사와 이 업체 대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A사는 2017년부터 5년간 수입한 중국산 미용용품 1000만 점(시가 90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고 미국·스페인·이탈리아 등지로 3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완제품 상태인 중국산 인조 속눈썹·네일스티커·손톱깎이 등을 수입한 뒤 단순 포장 작업만 하고도 'Made in Korea'라는 허위 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어들이 중국산 제품의 불량률·안

전성과 K-뷰티 열풍 등을 이유로 한국산을 선호하자 A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이 업체는 수입 물품에 단순 포장 작업만 해 수출할 경우 당초 수입국을 원산지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바이어가 'Made in Korea' 표시가 된 포장재 디자인을 했고, A사는 국내 업체를 통해 이를 생산해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포장했다.

A사는 중국산 미용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년간 356차례에 걸쳐 물품 가격을 80~90%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도 세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관은 A사에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과징금 2억여 원과 함께 관세 등 누락세액 7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도경 기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19)

인도네시아, 7월부터 탄소세 시행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2년 예산세제 개편 조치의 일환으로 승인된 자국의 새로운 탄소세가 2022년 7월 1일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2022년 4월 1일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7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세계 경기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영향, 원자재 가격에 대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변화와 같은 에너지 부문의 지속적인 차질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압박이 심해져 도입이 늦어진 것이다.

또한 탄소 시장 로드맵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술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시행

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규정들이 마련되면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게 되고, 발전소는 인도네시아에서 탄소세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분야가 될 것이다.

2021년 10월, 탄소세는 조세규제조정(HPP)에 관한 법률 제7/2021호로서 처음 소개되었다. 탄소세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배출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고, 탄소세의 관세와 기준을 명문화하기 위해 재무부령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1kg당 Rp-30(0.21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탄

소 배출량 1t당 약 2.1달러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규정을 입안하고 있다.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탄소세가 많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1년 10월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국가개발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탄소경제 가치(CEV) 구현과 관련한 대통령령 제98/2021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9일 발효되었다.

탄소세 부과는 NDC 목표 달성 시 우선 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NDC에 따라 2030년까지 자체노력으로 29%, 국제적 지원으로

41%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게다가 정부는 2050년 저탄소 기후 복원력을 위한 장기 전략과 2060년 혹은 그 이전에 순배출 제로(Net Zero)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탄소세의 목표가 지역사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정의의 원칙을 이행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신승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shshin0317@keumseong.com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 kotra

바이어 발굴

해외투자 진출

해외시장 조사

해외출장 지원

수출애로 상담

투자유치 지원

무역·투자의 모든 것,
KOTRA와 상담하세요!
☎ 1600-7119
전 세계 127개 무역관이 도와드립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KOTRA가 되겠습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 종합 상담
☎1600-71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면 마케팅이 돌아왔다

지자체·무역유관기관, 바이어 초청 상담회 봇물... 기업들도 해외출장·전시마케팅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들고 글로벌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수출기업들의 대면 마케팅이 살아나고 있다. 유럽과 미주, 중동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각종 규제가 풀렸다. 기업들은 규제가 여전히 중국과 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수출 상담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국제 타이어 전시회 ‘더 타이어 쾰른 2022’가 열렸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 전시회(격년 개최)에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동아타이어, 흥아타이어, 알투스 등 총 6개의 한국기업이 참가했다. 참가업체 관계자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시회가 열리지 않아 갑갑했는데 모처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게 됐다”며 반가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이런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무역유관기관의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한 대면 마케팅도 활기를 띠고 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상관련 홈페이지에는 하반기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가 쏟아진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는 개최국의 이런저런 방역 규제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주저하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어 조기 마감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7월 13~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충북우수상품전을 연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충북기업 40개사가 참가하며 현지 바이어 200여 명이 초청돼 참가기업과 매칭 상담이 진행된다.

개별기업 차원의 출장을 통한 해외마케팅도 본격화하고 있다. 화학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H사 K대표는 5월 초 태국과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한 번의 상담을 위해 출장지에서 열흘 격리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1~2주간 격리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2년 동안 출장이 힘들어 바이어들과 화상통화만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방역규제가 풀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KOTRA는 뉴델리무역관을 통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인도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공유하고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현지에서 마련했다. 5월 25일 인도 수도 뉴델리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양국 산업인, 학계인

사, 전문가가 참여한 ‘한·인도 전기차 협력 포럼’이 개최된 데 이어 26일까지 ‘한·인도 경제 협력 파트너십 화상 상담회’가 열렸다. 상담회에는 국내기업 13곳, 인도기업 12곳이 참가해 수출, 기술협력, 합작투자 등 전기차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불러 진행하는 바이어초청 상담회도 최근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강원도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등 7개국 빅 바이어 9개사를 직접 초청해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77건, 885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이런 바이어초청 상담회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재 진행 중이

거나 예정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7월 26~27일 청주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 상담회를 준비 중이며 일본, 홍콩, 베트남 등 10여 개국의 바이어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화상상담에 질린 기업들이 오프라인 상담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전시회장에도 해외바이어들이 대거 눈에 띈다. 5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2022 국제전기전력전시회’에서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열린 것을 비롯, 대부분의 대형 전시회들이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석경·김영채 기자



브라질 대면 마케팅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오프라인 대면 마케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브라질 APAS 박람회(Feira APAS 2022)’에 국내 식품업체와 함께 참가해 240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남미지역 최대 국제 식품박람회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유력 수입 및 유통 바이어가 대거 참석했다. [사진=aT 제공]

[인터뷰] 박종은 충청북도 통상전문위원

화상상담 성과, 대면상담의 4분의 1 수준으로 푹 ↓

하반기부터 본격 대면 마케팅 지원... 신규 바이어 발굴 기회로 활용을



박종은 충청북도 통상전문위원은 30년 가까이 충북의 통상지원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를 만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방

자치단체의 통상지원이 어떻게 이뤄졌고 또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들은 바가 있다.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일부 업체로부터 대면 마케팅이 안 되니까 신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기존 거래마저 끊어지는 상황에 처했다고 들었다. 또 어떤 업체는 중국 바이어에게 물품을 보냈는데, 바이어 사정(코로나19

를 핑계로) 대금결제를 못 받았다고 한다. 도에서 진행하는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업체들은 해외에 직접 가서 대면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소량 주문 한두 개 받고 진도가 안 나간다고 토로했다.

– 도의 통상지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나. 첫 해엔 우리도 기업도 당황했다. 통상사절단은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바로 전환했는데, 전시회 참가 지원은 비슷한 사업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서 해당 지역 사절단 형태의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바꿨다. 상하이 소비재전시회는 상하이 화상상담회, 광주우캔페어는 광주 화상상담회로 바꾸는 식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전트를 통해 현지에서 화상상담 참가업체들의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가 직접 보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상담으로 진화하기도 했다. 일부 사업은 홈페이지 개편 지원 등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

– 업체들의 반응은.

처음엔 화상상담을 어려워하고 낯설어했는데, 금세 적응했다. 하이브리드 전시상담도 반응이 좋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계가 왔다. 화상상담이 너무 많아진 데다 현지 바이어 풀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지난상담에서 봤던 바이어를 또 만나거나 동종업계에 중복 상담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불만들이 나왔다. 2년 이상 온라인 마케팅만 하다 보니 질린다고 말하는 업체도 있었다.

– 성과는 어땠나.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 소량 거래는 이뤄지기도 하는데, 대량 상담과 계약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로 도에서 통상지원 사업에 대한 ‘후속 수출성공’에 대해 조사를 해 봤더니, 코로나19 이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 화상상담과 대면상담의 차이인가.

대면상담의 경우 바이어를 만나서 샘플

을 보여주고 설명하다 보면 상호 보이지 않는 신뢰가 쌓이는데, 대면상담은 그게 어려운 것 같다.

–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포함해 방역규제를 대부분 풀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안다. 충북도의 통상지원 시책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본격적으로 대면마케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베트남에서 충북기업 4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충북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 3년 만이다. 일본 동경한국상품전을 비롯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19 규제가 풀리지 않아 대체사업이나 미국, 두바이, 싱가포르, 태국 등 봉쇄가 풀린 지역으로 돌리고 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출기업에 조언을 한다면.

수출 초보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수출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을 적극 이용하면 좋다. 이제 대면 마케팅 지원으로 전환했으니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존 바이어가 있다면 긴밀하게 연락하고 접촉해 거래가 끊어지지 않고 확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석경 기자

산업전시회,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 회복

전시업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국제이동 자유로워지기까지 완전 회복은 기대난

방역규제 완화에 기지개 켜는 전시산업

전시산업은 내수는 물론 수출 마케팅의 효과적인 플랫폼이다. 하지만 2020년 초 지구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근까지 2년 동안 이 플랫폼은 제 구실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시회 참가를 통한 거래처 발굴 등 대면 비즈니스도 거의 불가능했다. '전시 암흑기'로 불리는 2년 동안 전시업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최근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시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전시산업의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본다. 인터뷰는 ▷전시장운영자 업계에서 김한주 코엑스 전시컨벤션사업본부장 ▷전시주최자 업계에서 강신동 (주)베페 전무 ▷해외전시회 국내 에이전시업계에서 박정미 라인메쎬 대표와 진행했다. <편집자>



지난 3월 17~19일 코엑스에서 열린 xEV 트렌드 코리아 전시회.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전시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신문 DB】

회는 예년의 60~70%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전시회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빨리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미 (주)라인메쎬 대표는 "독일의 경우 작년 8월부터 전시회가 거의 정상적으로 개최 중"이라며 "현재 독일은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하지 않고 전시장 내 규제도 모두 해제된 상태"라고 전했다. 박 대표는 "최근 독일에서 개최된 '프로바인'의 경우 참관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40% 이상 늘었다"며 "수출기업들이 대면 마케팅 재개에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100% 내국기업과 내국인 참관객만 참가하는 국내 이벤트가 아닌 이상, 전시회가 제대로 회복되려면 국제간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선행돼야 한다. 세계의 시장이 된 중국이 여전히 코로나19 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방역증명서 제출이나 호텔 격리 등을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 아직 국제 항공수요에 비해 공급이 못 미치고 있고, 항공료나 유류할증료도 계속 오르는 상태여서 전시회 활성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김석경·김영채 기자

계도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오수영 코엑스 홍보실장은 "코엑스의 경우 5월 전시장 가동률이 코로나19 이전의 9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했다. 코엑스가 주최하는 전시회도 대부분 예년 수준의 80% 이상으로 회복됐다. 오실장은 "지난 3월에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F+AW)의 경우 내년도 전시회에 웨이팅(대기)이 걸릴 정도로 재참가 예약이 많다"며 "향후 전시산업 회복의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베페 베이비페어의 주최사인 (주)베페의 강신동 전무는 "임신·출산·육아용품 업계의 특성상 방역규제 완화가 전시회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시차가 있다"며 "오는 9월 전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정부의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전시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일부 전시회는 예년의 약 80~9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전시회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컨벤션의 경우 전시회보다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항공노선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중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여전히 완전한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 국내 전시산업의 피해가 막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전시회가 '울스톱'하면서 전시장운영자, 전시주최자, 전시공사업체 및 서비스업체 등 국내 전시산업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었다"는 말로 그간의 어려움을 전했다. A 전시주최사 관계자는 "예년이면 이 기간 중 4차례의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텐데, 3차례는 취소하고 1차례만 반토막 이하로 겨우 개최했다"며 "한 번은 전시회 개막 몇 시간 전에, 전시부스 인테리어 공사까지 거의 마친 상태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4월 말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포함해 방역규제가 대부분 풀리자 전시업

[인터뷰] 김한주 코엑스 전시컨벤션사업본부장

최근 전시장 가동률 코로나 이전의 90%까지 올라와



- 코로나19 피해는 얼마나. 코엑스는 전시공간·회의실 임대사업과 전시주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방역지침이 시행되면서 임대사업과 전시사업이 모두 타격을 입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시회와 컨벤션이 거의 진행되지 못해 전시장 임대 매출이 반토막 났다. 또 코엑스는 전시주최자로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매출 역시 절반 이하로 줄었다. 2년 동안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매출 감소가 있었고 누적 적자가 100억 원을 넘어서었다. - 매출감소가 곧바로 적자로 이어지는 구조인가.

적자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힘들었다. 여기에 자체 매출감소까지 겹쳤다. - 전시업계의 피해가 다른 산업계에 비해 컸다고 생각하나. 그렇다. 코로나19 공포로 인해 전시회에 참관객이 사실상 오기 어렵게 됐으므로 참가업체들이 참가를 주저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시회 취소나 축소로 이어진다. 전시주최자, 전시장운영자뿐만 아니라 전시공사업체 및 서비스업체, 참가업체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정부의 방역정책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집합금지명령으로 전시회 개최 몇 시간 만에 취소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게다가 해외 참가업체나 바이어의 입국이 어렵게 되면서 설사 전시회가 개최되더라도 국제 비즈니스 상담은 기대할 수 없었다. 컨벤션 부문은 더 타격이 컸다. 국제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국내 행사도 얼어붙었다.

기조를 유지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이 있다면. 우선 공존과 상생의 정신이다. 전시산업의 각 주체들이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 전시주최자는 참가업체에게 취소된 전시회의 참가비를 돌려주고, 전시장운영자는 참가업체들에게 환급을 해 주었다. 전시회 참가업체들도 피해를 봤지만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전시업계가 빠르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건, 이런 공존과 상생 노력 덕분이다. 두 번째는 한국 전시산업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이다. 전시와 컨벤션은 같이 이뤄지는 건데 현재 전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하

고 컨벤션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 최근 정부의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달라진 점은.

4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에 이어 5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가 풀리면서 많이 호전되고 있다. 코엑스 전시장 가동률은 5월 현재 2019년의 90% 수준까지 회복됐다. 코엑스가 주최하는 전시회는 대략 예년의 80~90% 수준이다.

- 향후 전망은. 전시회나 컨벤션이 정상화하려면 아직 많은 선행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가령 외국기업의 참가나 바이어 내방을 위해 국제 항공 운항이나 출입국 절차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하고 다른 나라에서라도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년부터는 전시산업이 본격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경·김영채 기자



지난 3월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F+AW)에서 외국인 바이어와 국내 참가업체 관계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코엑스 제공】

전시장 부킹(예약)은 보통 전시회 개최 2년 전에 진행된다. 이때 임대료도 함께 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지고 전시회가 취소되었을 때, 코엑스는 고심 끝에 이를 주최자들에게 환급해 주었다. 또 전시회를 축소 개최하거나 날짜를 변경해 개최할 때도 위약금을 부과하는데, 코로나19 특수상황임을 감안해 이를 환급해 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코엑스의 공익성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2년 동안 환급해준 금액만 100억 원에 달했다. 물론 이 환급금에는 한국무역협회 부담금이 포함된 것이어서 전액 코엑스의

[인터뷰] 강신동 (주)베페 전무

코로나 팬데믹에 “지옥을 경험했다”... 더디지만 정상 회복 중



- (주)베페에 대해. 매년 2월과 9월에 코엑스에서 '베페 베이비페어'를 주최하는 전시주최사다. 사명인 베페(BeFe)는 'Beyond Fair & Exhibition'의 줄임말로 전시회를 넘어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베페 베이비페어는 2000년 처음 개최된 이후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관련 대표 브랜드와 제품들이 전시되는 대표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 코로나19 피해가 컸다고 들었다. 국내 전시주최자 중에서 베페가 가장 피해가 컸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2020년 2월 20일 베페 베이비페어 개막일을 열흘가량 앞두고 1월말 국내 첫 환자가 나오면서 하루하루 공포분위기가 심화됐다. 맘 카페를 비롯한 고객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전시회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쏟아졌다. 참가업체 담당자들도 참가가 겁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전시회 개최 1주일을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20명에 도달했다. 전시회 개최를 포기했다. 참가업체들에게 즉각 참가비를 100% 환불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8월에 개최 예정인 전시회는 정상 개최될 것으로 생각했다. 전시부스도 조기 매진됐다. 그런데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 집회가 있고 난 후 2차 팬데믹이 왔다. 확진자가 하루 160명 수준으로 늘었다. 전시회 개막 하루 전날 오후 4시에 강남구청에서 집합금지명령이 왔다. 코엑스도 폐쇄됐다. 이번엔 2월에 무산된 전시회보다 피해가 더 컸다. 전시장에 전시물품이 모두 들어와 있었고 부스공사도 거의 마친 상태였기 때문이다. 참가업체들로부터 욕설은 기본이고, 손해배상 얘기까지 나왔다.

- 지난해에는 나아졌다. 2021년 3월 초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일시적으로 개선돼 예전의 절반 규모로 개최하긴 했지만, 적자였다. 그리고 8월엔 다시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상승곡선을 그리자 어쩔 수 없이 또 취소했다. 2년 동안 수십 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 어떻게 버텼나. 다행히 회사에 자산이 좀 있어서 대출로 억지로 버텼다. - 올해는. 지난 3월에 예년의 절반 규모로 전시회를 진행했다. 당시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 수준이었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전이어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전 세일즈가 너무 어려웠다. 오는 9월 전시회도 본격 회복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예년의 60~70% 수준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코엑스 A홀만 빌렸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전시회 개최 지원 사업 결

정에서 9월 베페 베이비페어가 해외바이어 초청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게 됐다. 출산 및 유아용품 업체들은 국내 사업환경 악화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베페 베이비페어는 온·오프라인 상담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 B2B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시회 중에는 이미 예년의 90%까지 회복됐다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업종 특성 때문에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출산용품이나 유아용품 업체들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피해 외에 저출산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다. 업체들

이 많이 힘들어 한다. 때문에 일반 생활용품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확대하는 곳도 있다. - 향후 전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4월 말 이후 분위기가 좋아졌다. 고객 커뮤니티 등에서도 부정적인 이슈가 사라졌다. 기업들의 경우 그동안 온라인 시장 쪽에서 출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출산용품과 유아용품은 속성상 대면 마케팅이 필요하다. 몸을 사리고 참가하지 않았던 대형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맘 카페 같은 곳에서도 베페 베이비페어 개최를 기다린다는 글들이 올라온다.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변수가 없다면 내년에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래도 100%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예년의 약 80~90%까지 회복될 것으로 본다. 내년 2월 전시회는 코엑스 A, B홀을 모두 빌렸다. 김석경 · 김영채 기자



지난 3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베페 베이비페어' 전시장. 아직 방역규제 완화 전이지만 참가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사진=베페 제공]

[인터뷰] 박정미 (주)라인메세 대표

독일 전시회들은 거의 정상화... 해외마케팅에 적극 활용을



- 라인메세는 어떤 회사인가. 독일 쾰른메세와 메세뒤셀도르프의 한국대표부다. 쾰른메세와 메세뒤셀도르프는 세계적인 B2B 무역전시회 주최자로 전시장 오너이자 100여개의 산업전시회를 직접 주관한다. 라인메세는 한국 기업들의 독일전시회 진출을 주최자 입장에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존 및 신규 참가사와 방문객을 발굴 및 관리한다. 기업들이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최적의 플랫폼인 해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는 업무다.

-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최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난 2년간 전 세계 전시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특히나 독일 전시회는 자국민 대상의 로컬 전시회가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전시회여서 각국의 코로나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전시회 개최가 어려웠다.

다행히 유럽, 미주 등에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던 작년 8월 '카라반살롱(CARAVAN SALON)'을 시작으로, 세계 최대 의류기기 산업전시회인 '메디카(MEDICA)'까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었다. 메디카는 한국 의료 전문가들에게 잘 알려진 전시회로 국내에서

도 약 700명이 방문했다. 지난 5월 15~17일 개최된 '프로바인(ProWein 2022)'에는 참가객이 팬데믹 이전보다 오히려 41%나 증가했다. 팬데믹 이후 국내 와인시장의 급격한 성장,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회의 중요성, 독일 및 국내 입출국 규정의 완화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독일은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요청하지 않으며, 전시장 내 규제도 모두 해제된 상태다. 다만, 메세뒤셀도르프 및 쾰른메세는 참가사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공조 시스템 및 방역은 코로나 대유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얼마 전 해외입국자가 PCR 검사뿐만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제출할 수 있게 규정이 많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참가사 및 참가객들의 평시와 가깝게 독일을 왕래할 수 있게 됐다.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해외 입국자 규정 완화로 국내 전시산업도 회복세가 완연하다. 라인메세는 독일 전시회를 알리기 위해 국내 전시회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는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KIMES에 참가했으며 5월 27~29일 열린 SIDEEX에서 쾰른 치과기자재전시회 'IDS'를 홍보했다. 6월에는 레하케어 전시회에서 뒤셀도르프의 '레하케어(REHACARE)'를 홍보할 계획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

고 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는 하이브리드, 또는 온라인 전시회가 대세였지만, 곧 대면전시회를 완벽히 대체할 수 없음이 판명됐다. 독일은 팬데믹 이전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면전시회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앞으로는 각종 매칭프로그램, 채팅, 제품시연, 강연 등 전문성을 강화한 플랫폼 운영으로 참가사와 방문객의 비즈니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전시회 참석을 결정

한 경우 비즈니스 호재를 불러온 사례를 많이 접한다.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 입출국 규제에 불참한 가운데 한국기업들이 유일하게 독일 전시회에 참가해 방문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팬데믹 이후 개최된 독일 메세뒤셀도르프, 쾰른메세 참가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어느 때보다 진성 바이어들이 자신들의 부스를 찾았으며, 방문객 숫자는 줄었어도 오히려 훨씬 유익했다는 것이다. 독일전시협회(AUMA)는 코로나19위기 속 전시회에 참가하며 도전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면전시회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혁신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비즈니스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했다. 많은 참가사들의 사례가 방증하듯, 위기 상황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 산업전시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김석경 · 김영채 기자



5월 15~17일 독일에서 개최된 '프로바인(ProWein 2022)' 전시장. 참가객이 팬데믹 이전보다 41%나 증가했다. [사진=라인메세 제공]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공기의 질이 삶의 질이기에
강남의 푸른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남은
오늘도 맑고
푸르다



[기고] 사례로 보는 중국 Z세대의 소비트렌드와 대응전략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창출하는 '큰손'

2차원·귀차오·가심비·인플루언서·핑크양생... 5대 키워드를 이해하고 활용해야

중국 저성장 원저우 라이브커머스층에 들 어서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두 더우인 업 을 켜놓고 실시간으로 해당 물품을 팔기 위 해 정신없이 스마트폰을 보며 설명하고 있 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요즘 중국 도소 매 시장 어디에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물건 을 파는, 변화된 중국의 한 단면이다. 코로나 19로 우리가 가지 못한 지난 3년 동안 중국 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중국 시장 및 소비자 정보와 지식을 '리셋(reset)'해야 할 듯하다.

중국 인터넷네트워크센터(CNNIC) 통계 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중국 휴대폰 사용자 수가 약 16억4000만 명, 인터넷 보급률은 73%에 이른다. 이중 농촌지역 인터넷 보급 률이 57.6%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네티즌수도 이미 10억 명을 초과했고, 농촌 지역 네티즌 수가 2억4000만 명을 넘는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와 재택근무 로 인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7~2021 년 연평균 18.5% 성장을 보였다. 그 중 2021 년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대비 12.0% 성 장한 10조8042억 위안(약 2045조 원)이다. 국경간 전자상거래(과징) 수출입 규모는 약 2조 위안(약 378조5000억 원)으로 전년대 비 15% 상승하며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성장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족 수도 2021 년 기준 8억4200만 명을 넘어섰고, 온라인 배달음식 주문자 수가 5억4400만 명에 이 른다. 즉 인터넷 이용자의 81.6%가 온라인 쇼 핑을 한다는 것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Z세대의 소비패턴

특히 중국 Z세대의 소비패턴과 성향은 매 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핵 심주류 계층으로 등장한 중국 Z세대의 소비 구매 파워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로 Z세대의 소비성향과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시 장 진출이 어려운 지경이다.

Z세대는 1995~2009년 사이 태어난 젊은 이들을 지칭한다. 2021년 기준 3억2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1%를 차지하고 있 다. 중국 Z세대의 소비규모는 약 4조~5조 위안(약 756조~946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 으며 가계 지출의 13%를 차지한다. 특히 온 라인 전자상거래 50% 이상의 매출이 Z세대 에 의해 창출되고 있다.

최근 중국 Z세대의 소비특성과 특징은 '2 차원(二次元; 코믹, 만화를 가리키는 서브컬 처 문화), 애국을 뜻하는 '귀차오(国潮)', '귀 평(国风)', 마음을 움직이는 '가심비 마케팅',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KOL(Key Opinion Leader), KOC(Key Opinion Consumer)', 극한의 상황에서 건강을 챙긴다는 '핑크양 생(朋克养生)' 등의 5개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 는 중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 다. 필자는 이런 변화에 따른 5가지 우리기 업의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만약 가격대가 높은 제품이라면 제 품포장 및 중량을 줄여 판매가를 낮추는 포 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퍼펙트 다이어리(完美日记)의 경우 '작은 하이힐 립



[사례1] 퍼펙트 다이어리와 화시즈의 Z세대 가치소비 전략

〈출처: 바이두〉



[사례2] PMPM과 C카(C咖)의 캡슐 마스크팩

〈출처: 바이두〉



〈출처: 중국경영연구소〉

스틱'이라는 브랜드로 기존 립스틱 중량을 낮춘 0.8g짜리를 판매하여 1800만 개 이상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애국소비에 민감한 특성 활용

둘째, 중국 Z세대가 '귀차오(애국) 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과 애니메이션 혹은 다른 IP와의 콜라보도 좋 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 뷰티기업인 화 시즈는 중국 Z세대를 대상으로 봉황 이미지 및 중국 역사 스토리가 새긴 립스틱을 제작 해 성공했다. 또 퍼펙트 다이어리는 야생동 물을 모티브로 한 12색의 아이셰도우를 출 시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뉴욕 메트로

서 마시듯이 피부에 맞는 케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엄청난 매출을 올린 바 있다. 넷째, 우리 브랜드(제품) 특징과 중국 소비 자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 경쟁 브랜드 (제품) 약점이 중첩되는 '셀링 포인트'를 찾아 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브랜드와 제품이 과연 중국 소비자의 어떤 페인 포인 트를 해결해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여러 개의 셀링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1개의 핵심 셀링 포인트를 찾는 노 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 디지털 마케팅 주기에 맞춰야

다섯째, 제품 컨셉 기획부터 판매에 이 르 는 전 과정을 중국 디지털 마케팅 주기로 보 고 단기 및 중장기 마케팅 전략을 체계화하 는 작업을 해야 한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 이는 것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모두가 크리에이터이고 마케터인 시대로 중국어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영 상 숏폼을 통해 '시드 유저'로 영입하고 그들 을 거점으로 유입량을 늘려나가야 한다. 최 근 무료로 소비체험 후기를 써 주는 중국인 들도 적지 않아, 그런 기회를 활용해 브랜드 계정을 키우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물 론 팬덤이나 인터랙션은 전문 크리에이터 대비 낮지만 그래도 검색 노출에 효과적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다음 라이브커머스, 왕홍(KOL/KOC)을 활용한 '시딩(种草) 마 케팅'을 진행할 경우 파 급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중국 소비트렌드와 시 장 구조에 적응하는 노 력을 서둘러야 한다.



박승한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폴리탄 박물관과의 콜라보를 통해 지속적으 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셋째, 중국 Z세대의 소비성향 패턴이 감성 화되어감에 따라 창의적인 컨셉과 차별화된 제품 디자인 등 선이 굵은 소구점(訴求點)을 발견하는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PMPM(POUR LE MONDE POUR LE MONDE) 화장품 및 C카(C咖)의 캡슐 팩 등 중국 신생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중국 Z세대의 감성소비에 호소해 성공한 사 례라고 볼 수 있다. PMPM은 코로나19 시기 중국 Z세대의 여행 욕구를 자극하는 여행가 방 모양의 화장품 포장박스에 냉장고 자석 과 국제우편 모양의 엽서를 넣어 Z세대의 감 성을 자극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2020 년 3월 제품 출시 후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 구하고 5월 티몰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1개월 만에 1500만 위안(약 28억 원)의 매 출을 기록했다.

또한 중국 신생브랜드 C카(C咖)의 캡슐 마스크팩은 포장 아이디어를 캡슐커피와 레고블럭에서 도입하여 고급스러움과 펀 (Fun) 요소를 가미시켜 중국 Z세대의 공감 을 얻었고, 캡슐커피처럼 기본에 따라 골라

미리 보는 2022 하반기 경제 이슈

세계 무역, '저비용·고효율'보다 '지속·안정성' 우선

지역화·파편화되는 생산기지... 미국 주도 '간부쇼어링' 눈길

◇... 2022년 하반기를 앞두고 세계 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물류와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주요국 중앙은행은 고공행진 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긴축정책을 가속하고 있다. 심지어 공급망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더욱 우선해 재구조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위한 비용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하는 추세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 하반기 주요 이슈를 '안정성 위주의 공급망 재편'과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나눠 짚는다. ◇

최근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해온 요소는 ▷코로나19 봉쇄 ▷물류 대란 ▷지정학적 불안 ▷탄소소 규제 본격화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임금과 투자 인센티브를 따라 형성해온 글로벌 공급망이 더는 가장 효율적인 체계가 아니게 된 셈이다. 각국은 이러한 주요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일반적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일부 효율성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공급망에 대한 집중을 줄이고 다각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급망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점은 '효율성'에서 '회복 탄력성·지속 가능성·지정학적 안정성'으로 전환됐다.

지난 2020년 4분기 딜로이트 북미지역 CFO 시그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 공급망을 좀 더 다변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37%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최근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선전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 봉쇄로 이뤄지면서 이러한 우려에 여전히 힘을 실고 있다. 양지원 무역협회 신산업연구실 연구원은 "다국적 기업들이 금번 중국 봉쇄 사태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의 효율성보다 안정성을 중시하게 됨에 따라 위기 때 복원력이 강한 공급망 다원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나아가 중국 외에도 다른 국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 공장 가동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공급망 차질은 2020년 이래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첫 번째 유인이었다.

뒤이은 두 번째 유인은 지정학적 갈등과 정치적 안보 문제다.

글로벌 공급망과 달리 지역 혹은 국내 공급망, 혹은 핵심 부품 및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함으로써 공급망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망 지역화는 군사·정치적 '동맹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지난 5월 23일 출범선언이 있었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이 동맹국 지역과의 공급망 재편을 꾀하는 대표적인 시도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처럼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접근성 개선은 없다. 대신에 이 협정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배제한 미국의 동맹국들도 공급망을 꾸리겠다는 '간부쇼어링(Friend-shoring)'의 셈법이 담겨 있다.

●공급망, 값싼 생산비용보다 안정성 먼저 =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의 통신 장비 등이 안보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 공급망에서 배제했고, 화웨이와 ZTE 등이 대표적인 희생양이 됐다. 아울러 미중 관세전쟁은 193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의 실효 관세율 인상을 이뤄내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2009~2011년 유로존 위기 이후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탈세계화가 가속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상호의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공급사슬의 바이러스 전파 위험과 보건으로 문제로 파열음을 냈다.

그리고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면서 이러한 세계 공급망 파편화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리 쇼트 연구위원은 5월 18일 세계경제연구원 웨비나에서 "러·우 전쟁 이후 전 세계

적으로 식량, 에너지 가격 급등과 안보 위기가 고조됐다"며 "이는 서방국가와 러시아간 신냉전 구도를 형성시키는 등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쇼트 연구위원은 신임 한국 정부에 "먼저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안보 외교, 경제 전략,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러시아와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쇼트 연구원은 러시아와 거리를 둬야 따라 발생할 공급망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단일 국가와의 무역 협상보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국적 통상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국에 앞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 역내 협력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편중된 무역 구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쇼트 연구원은 내년까지는 유럽 에너지 쇼크, 인플레이션 심화, 러시아 제재 등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하며 자국 보호주의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한국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제재 등 보호주의 무역 요구가 증가할 수 있어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탄소·플라스틱 등 기후 규제 동향 주목 = 기후·노동 등 이슈가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최근의 트렌드다. 미국이 중국 신장산 직물에 대해 '강제노동'을 발미로 수입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유럽연합(EU)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 등이 그 일례다.

미국의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등 비우호국

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자 권위주의 국가인 이들 국가는 선진국의 이러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EU는 글로벌이슈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주도권 강화에 주력하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 및 자본이동에 대한 대응전략으로도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U 차원의 단일제도 수립을 통해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성 이슈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세와 배출권 등을 다루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또한 오는 6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의회 수정안에서 적용품목과 범위가 확대된 부분은 우리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과 플라스틱 업종의 규제 추가가 이뤄졌는데, 이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관련 업계 부담을 가중할 전망이다.

신규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연구원은 "CBAM의 적용 배출범위가 간접배출까지 확대된다면 산업부문의 전력소비량이 높은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규제의 경우 UN 175개국이 참여하는 협약이 2024년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G20은 주로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주목하고 있으며, WTO는 플라스틱의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다자협력체와 주요국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재활용률 제고와 폐기물 처리 개선, 해양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관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하면 EU는 역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그간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의존하던 미국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중국은 2017년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했다. 아세안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관한 역대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함께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와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열었다. 행사에서 양국 기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교역·투자 확대와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천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리 보는 2022 하반기 경제 이슈

인플레이션, 글로벌 시장에서 변수 아닌 상수 되나

또 다른 '3고 시대' 왔다... 대외 불확실성이 최대 리스크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를 비롯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5월 19일 독일 본 인근 코니히스빈터 페테르스베르크 연방영빈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글로벌 인플레를 중요 의제로 다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G7의 3월 인플레이션은 7.1%로 치솟았고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코니히스빈터=AP/뉴시스】

■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치

구분	원/달러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22Q2	'22Q3	'22Q4	'22Q2	'22Q3	'22Q4	'22Q2	'22Q3	'22Q4	'22Q2	'22Q3	'22Q4
Nomura(4/29)	1,290	1,270	1,250	1.08	1.10	1.14	125	123	120	6.80	6.70	6.60
ING(4/8)	1,220	1,200	1,200	1.08	1.08	1.10	125	126	128	6.35	6.40	6.50
Morgan Stanley(4/26)	1,250	1,200	1,180	1.08	1.11	1.14	120	117	115	6.35	6.42	6.40
Standard Chartered(1/13)	1,140	1,130	1,120	1.19	1.21	1.21	112	110	110	6.35	6.40	6.50
BNP Paribas(3/29)	1,235	1,235	1,240	1.11	1.13	1.14	125	124	123	6.50	6.55	6.65
Wells Fargo(4/26)	1,260	1,270	1,280	1.06	1.05	1.04	128	129	130	6.60	6.63	6.66
ANZ(4/27)	1,260	1,250	1,225	1.09	1.10	1.12	135	135	130	6.55	6.50	6.40
JP Morgan(5/2)	1,280	1,290	1,300	1.06	1.05	1.08	130	131	132	6.70	6.75	6.80
Bloomberg 전망치(5/5)												
중간값	1,235	1,218	1,201	1.08	1.10	1.12	125	125	125	6.50	6.50	6.50
평균값	1,236	1,224	1,213	1.08	1.11	1.12	126	125	124	6.52	6.53	6.53
선물 환율(4/17)	1,265	1,262	1,258	1.06	1.06	1.07	130	129	128	6.65	6.68	6.70

주: () 안은 전망치 발표일.

(자료=Bloomberg(검색일: 2022.5.5))

올 하반기 세계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공급망 교란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고착화다. 최근 IMF가 발표한 세계 물가 전망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급등에 의한 실질적인 압력 강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IMF는 지난 4월 춘계총회에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상품 가격상승 등 물가 압력 확대로 인플레이션 전망을 선진국 5.7%,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8.7%로 각각 1월 예상치보다 1.8%p, 2.8%p 높여 잡았다. 미국과 EU의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이 각각 7.7%, 5.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작년 10월 제시한 수치보다 각각 4.2%p, 3.6%p나 높은 것이다.

지난 5월 19일 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세계 금융 지도자들이 여러 차례의 인플레이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압력 증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비용 압박을 언급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경기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2022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 하반기 세계 경제가 '정책 전환기, 경로의 초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우 전쟁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확대하며,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사이 상충관계에 직면해 있는 통화 당국의 어려움을 가중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세계 교역 비중이 큰 수출품목으로는 밀·옥수수 등 식품을 비롯해 광물질비료·천연가스·석유 등 에너지 자원, 팔라듐·니켈, 비활성기체, 티타늄스핀지, 우라늄 등이 있으며, 이들의 가격상승은 자동차, 철강·배터리, 반도체, 항공기, 원전 등의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금융 대풍 부르는 '매'의 날갯짓 = 올 하반기에는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움직임이 거세진 후폭풍으로 글로벌 금융 불안정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22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 연준은 5월 4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5%p 인상함으로써 연 0.75~1.0%에 도달했으며,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6월 1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2.50~2.75%의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은 러·우 전쟁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에 채권매입을 조기 종료하고 정책금리 인상에 돌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줄곧 마이너스를 유지한 가운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22년 1월 말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3월 초 재차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반전

되며 5월 9일 기준 1.14%까지 상승했다.

일본 10년물 채권금리는 2022년 초부터 미국, 유럽과 유사하게 급등하다가, 3월 말 일본은행이 새로 발행된 10년물 장기국채를 0.25% 이율로 무제한 매입하는 '연속 지정 가격 오퍼레이션'을 실시하면서 0.25% 내에서 횡보 중이다.

일본은행은 물가상승에 미국 연준처럼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장기국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강경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일본은행 보유 채권의 평가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발 지플레이션(GVC+inflation) 쇼크 = 끝나지 않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지역봉쇄가 공급망·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등 리스크 확대로 공급망 약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3월 15일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상하이시가 3월 28일부터 봉쇄되면서 글로벌 물류 대란이 가중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등 도시별 락다운 확산 시 공급망 쇼크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며, 봉쇄로 인한 공급망 쇼크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경

제의 GVC발 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중국의 금리 인하(기준율 1번, LPR 1번)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사실상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미중간 금리역전 가능성도 상존한다. 중국발 인플레이션 확산은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중국 주요 도시를 봉쇄하는 제로코로나 조치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공산당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가운데, 적어도 시진핑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올해 가을에 개최 예정인 제20차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까지는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인구당 의료인력은 주요국의 30%에 불과하고, 중환자 병상 수도 인구 10만 명당 3.6개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낮은 감염률로 오히려 여타국처럼 자연 면역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효과가 mRNA 방식 백신에 비해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그만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 부담 = 이처럼 금리와 물가가 모두 높아진 가운데 환율까지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이 크게 뛰고 여타 통화 대비 달

러만 가치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고환율이 수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보다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더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율 상승에 따른 우리 경제의 수출 민감도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 구조상 환율 변동에 노출되는 부분인 순수출 익스포저(총 산출액에서의 수출 비중에서 수입 중간재 비중을 뺀 것)는 제조업의 경우 2016년 14.6%에서 2019년 13.0%로 꾸준히 하락했다. 예전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대 이득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반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가치가 모든 외국통화에 대하여 10% 절하될 경우 생산자물가가 2019년 기준 평균적으로 연간 2.5%의 상승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원화 가치 10% 절하시 국내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3.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KIEP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지난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급등세를 보였다. 그 외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자재 수출국들의 5월 초 기준 전년도 말 대비 통화가치는 브라질(13.3%), 페루(6.1%), 남아공(3.1%), 멕시코(2.5%) 등 국가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교착은 물론,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며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것과 미 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까지 대외외적 환경 요인들은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가 겹치며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고 고유가와 원자재 공급 부족 상황도 장기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반면, 한국의 견조한 수출실적과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경기회복,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지속 등은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팬데믹에도 견고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로 주식자금 유출세에도 외국인이 고금리-고신용등급의 원화채 투자를 이어가며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원/달러 환율은 대외 불확실성의 고조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5월 첫째 주 전망 기준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은 원/달러 환율이 2022년 2분기 1235원, 2022년 3분기 1218원, 4분기 1201원으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한 고금리에 이어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 등으로 고환율(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 '3고 시대'가 재현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향후 환율, 물가,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3고 현상 지속으로 슬로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재 기자

창간 5th을 축하합니다!

Connect the Future

사전 등록
신청
~ 6월 1일

SMART TECH KOREA 2022

제11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6. 8(수) ~ 10(금), COEX

행사 구성



올해의 주빈국



EMBASSY OF DENMARK
Seoul

INNOVATION
CENTRE
DENMARK

플래티넘 스폰서



주최 / 주관

산업통상지원부, 매일경제, MB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지능정보산업협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엑스포럼, KOTRA, 로봇신문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주한덴마크대사관,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관, 홍콩무역발전국

[이석재의 하반기 환율전망]

계속되는 달러 강세 압력 속 변동성 장세 예상



1. 상반기 환율 동향

러시아 전쟁, 미국 연준 긴축으로 달러 강세

[달러-원 환율동향] 올해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는 지난해 개장가인 1087.50원에 비해 무려 102원이나 높은 1189.50원에 개장했다. 전일과 금일 증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을 기준으로 볼 때 2월까지의 2.84원과 0.24%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3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중순에 잠시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던 상황 이외에는 줄곧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5월 12일에는 1291.50원까지 급등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3월 19일에 기록했던 1296.00원을 목전에 둔 수준이었다.

이렇듯 3월부터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강세를 유지한 것은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은행 스위프트 퇴출 등의 금융제재,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3월 말에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가능성으로 상승세는 잠시 주춤했다. 달러 인덱스가 5월 12일 들어 미국 연준의 긴축 가속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로화 약세 지속 등으로 105를 상회함에 따라 달러-원 환율도 1290.00원을 웃돌았다가 20일 현재 1268.10원에 마감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5월 20일 현재 평균 변동 폭과 변동률을 보면 2020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1 참조)

달러에 대해 6년 3개월 만에 최고 약세 기록

[엔-원 환율동향] 올해 달러에 대한 엔화 약세는 원화 약세 움직임과 비슷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약세 폭이 더 깊었다. 3월 25일 들어서는 달러-엔 환율이 122엔을 웃돌며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엔-원 환율은 100엔당 1000원대가 붕괴했다.

이후에는 낙폭이 더욱 확대되어 4월 20일에는 장중 한때 950원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4월 말에는 달러-엔 환율이 한때 130엔을 웃돌았으나 원화 약세 폭도 깊어짐에 따라 낙폭을 다소 완화하며 5월 20일 현재 991.75원을 기록했다.

엔-원 환율이 이렇게 낙폭을 확대한 것은 긴축을 시작했거나 계획 중인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완화책을 고수함에 따라 엔화가 달러에 대해 약세 폭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표-2, 3 참조)

유로화와 원화 약세는 비슷한 수준 유지

[유로-원 환율동향] 유로화도 달러에 대해 2월 10일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를 유지했지만, 약세 정도가 원화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5월 20일자 유로-원 환율은 지

■[표-1]

구분	연도별	달러-원		엔-원		유로-원		위안-원	
		변동폭	변동률(%)	변동폭	변동률(%)	변동폭	변동률(%)	변동폭	변동률(%)
전일 대비	2020	7.05	0.58	8.15	0.73	8.57	0.64	0.76	0.44
	2021	3.76	0.34	3.45	0.33	3.58	0.27	0.40	0.23
	2022	4.68	0.38	4.89	0.48	4.70	0.35	0.65	0.34
일 중	2020	8.75	0.72					0.85	0.49
	2021	5.39	0.48					0.58	0.34
	2022	5.64	0.46					0.69	0.36

난해 증가 대비 3.82원(0.28%) 하락했는데 이는 엔-원 환율이 지난해 증가 대비 40.64원(3.94%) 하락한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어쨌든 올해 유로화도 약세를 보인 것은 유럽중앙은행이 통화 완화책을 유지했고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2, 3 참조)

■[표-2]

구분	환율 (15:30 기준)				
	달러인덱스	달러-원	달러-위안	달러-엔	유로-달러
2021.12.30	96.084	1188.80	6.3694	115.15	1.1319
2022.05.20	102.856	1268.10	6.6979	127.86	1.0581
지난해 대비	6.77	79.30	0.3285	12.71	-0.0738
변동률(%)	7.05	6.67	5.16	11.04	-6.52

■[표-3]

구분	환율 (종가 기준)			
	달러-원	위안-원	엔-원	유로-원
2021.12.30	1188.80	186.63	1032.39	1345.66
2022.05.20	1268.10	189.33	991.75	1341.84
지난해 대비	79.30	2.70	-40.64	-3.82
변동률(%)	6.67	1.45	-3.94	-0.28

■하반기 달러-원 예상 거래범위

- 2차 지지선 : 1220원 // 1차 지지선 : 1240원
- 2차 저항선 : 1320원 // 1차 저항선 : 1300원

표들도 거론할 수 있다. 대외 국가 신인도를 나타내는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급등, 무역수지 적자 지속 및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심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뉴욕에서 거래되고 있는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50bp 수준에 근접했고 무역수지는 3개월째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누적 적자가 100억 달러를 웃돌았으며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는 4개월째 연속되고 있다. 이런 요인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 원화 약세를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회적으로 언급됐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또는 그에 준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가능성이 엿보일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하반기 달러-원 환율은 상승 압력이 유효한 가운데 상기 언급했던 불안 요인들이 완화될 경우 어느 정도 상승폭 반납 가능성도 예상되기 때문에 상하 변동성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거래범위는 1차는 1240원~1300원, 2차는 1220원~1320원 정도가 전망된다.

[기타통화 환율전망] 엔화는 현재까지 긴축과 관련된 일본은행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 당분간 완화정책 고수가 예상되어 약세는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달러당 131엔과 100엔당 950원대까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상하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화도 약세가 계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20년 만에 1유로=1달러 시대가 조만간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유럽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도 있어 유로당 1.0350달러와 1320원 근처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의 통제에 따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위안화는 코로나 확대 관련 봉쇄령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완화정책이 전개될 경우 추가 약세가 예상되지만, 시장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강세 반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석재
한국무역협회 TradePRO
외환 상담 전문위원

원화와 디커플링 심화 후 커플링 모습 유지

[위안-원 환율동향] 한편,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 3월 중순까지 강세를 유지하다가 4월 중순 이후에는 본격적인 약세 움직임을 전개함에 따라 5월 13일에는 6.83위안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계수는 3월 말까지 0.08을 기록하면서 디커플링이 심한 상태였으나 4월부터 다시 커플링이 전개됨에 따라 5월 20일 현재 연중 상관계수는 0.88을 기록했다.

위안화가 3월 중순까지 강세를 유지한 것은 양호한 중국 무역수지 흑자, 러시아 금융제재 관련 위안화결제 증가 가능성이 작용했기 때문이고 이후에 약세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 확진 관련 중국 봉쇄령으로 중국 경제 둔화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위안-원 환율은 3월 8일에 195.96원까지 급등했으나 5월 20일 현재 189.33원을 기록했다. (표2, 3 참조)

2. 하반기 환율전망

대내외적 불안 요인으로 상승 압력 유지

[달러-원 환율전망] 올해 달러는 연중 내내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유지했다. 5월 12일에는 2020년 3월 19일에 기록했던 1296.0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291.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하락함에 따라 5월 23일의 종가는 1264.10원을 기록했는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이다.

이는 2020년 3월 19일에 1296.00원까지 급등했던 달러-원 환율이 2020년 12월 7일에 1080.90원으로 하락했고 이후 2021년부터는 피보나치 상승 되돌림의 23.6%, 38.2%, 61.8%, 78.6% 수준을 거치면서 100% 수준 근처에 해당하는 1291.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관심은 달러-원 환율이 2020년 3월 19일에 기록했던 1296.00원을 웃돌아 1300원대로의 진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일단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 일본의 완화정책 고수, 유로존의 긴축 조치 지연 및 봉쇄령 강화에 따른 중국의 완화정책 기대감 등으로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름철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민감한 반응 등도 여전히 추가적 원화 약세를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달러-원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른 지

든든한 'K-컬처' 농사꾼들이 있어 무역도 수월해진다

우즈베키스탄에서 30년 한글 교육한 허선행 학당장과 중국 속 한류 이끈 박신희 대표 이야기

무역이나 외교 등 국가 간 교류의 밑바탕에는 사람과 문화의 소통이 있다. 특히 한 지역에 정착해 든든한 뿌리를 내린 한국인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선입견·편견 없이 받아들여주고, 그 자체로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는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1990년 러시아와 수교했고, 1992년에는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수교했다. 이후 이 나라들과는 지속적으로 교류가 확대되어, 이제 한국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가들이 됐다.

지난 5월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고려인마을과 15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조철현 작가가 쓴 <허선행의 한글 아리랑(라운드바우트)> 출간 기념회를 겸한 스승의 날 행사였다. 광주광역시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기리는 사업을 주도했고, 그 결과로 고려인 마을이 탄생했다. 이 책의 주인공 허선행 학당장의 고향인 나주와 지적인 곳이기도 하다. 스승의 날에 열린 서울 행사는 30년 간 허선행 학당장이 길러낸 제자들이 스승께 감사표 하는 자리였다.

비슷한 시기인 5월 18일 베이징에 있는 주중국한국대사관에서 한 사람의 노고를 표창하는 행사가 있었다. 이날 대사관은 북경건의화서문화전매유한공사 박신희 대표에게 국무총

리 표창을 대신 전달했다. 박대표는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K-팝을 알리고, 인재를 키우고, 한류를 전파하는 데 공헌했다.

한류는 '무역 인프라'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에서 30여 년 간 살면서 한국을 알리고 한류를 확산시키는 데 공헌한 두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 8000여 명의 한글 제자를 길러낸 허선행 학당장
허선행 학당장(57세)의 삶은 이번에 출간된 <허선행의 한글 아리랑>에 담담하게 담겨 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가 30년간 한글 교육을 해온 허선행 타슈켄트 세종학당 학당장의 이야기다.

허 학당장은 대학 때 교직을 이수하다가 포기했다. 그는 책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악필이라 칠판 글씨에 자신이 없어서, 솔직한 이유는 스승을 할 자신이 없어서"라고 밝힌다.

전남대 사범대를 졸업한 허 학당장은 한국과 수교한 1992년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간다. 가난한 집안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버전한 교사 생활 대신에 봉사 활동으로 먼 나라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고려인 노인들이 대부분인 '타슈켄트 광주 한글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카레이스키(러시아·독립국가연합 등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의 한국어 교육 필요성을 인식한 광주지역 사람들이 뜻을 모아 우즈베키

스탄에만 6개의 한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곳 중 하나였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른 한글학교는 좌초했고, 허선행의 의지가 있었던 타슈켄트 한글학교는 10년 후 교명을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로 바꾸는 등 여정 속에 그 존재 가치를 만들어간다. 또 한글만이 아니라 한국 전통, 음식, 대중 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면서 현지에서 한국을 알렸다.

지금도 직항으로 8시간이나 걸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글 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즈베키스탄은 스탈린의 이주 정책으로 건너온 수많은 고려인들이 일군 힘찬 여정이 있는 지역이었다. 허선행은 이 땅에서 사람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8000여 명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권 한글 교재 등 수많은 흔적으로 남았다. 또 대우자동차, 갑을방적 등 한국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때, 그가 만들었던 한국어 바탕은 큰 힘이 됐고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류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타슈켄트 세종학당은 교사 12명이 28개 반에서 연간 1500명의 학생에게 한글을 가르친다. 3500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에 다른 한국 교육기관과 한글 학원이 있지만, 그 숭고한 정신만은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책을 쓴 조철현 작가나 허선행 학당장은 이 모든 공로를 자신보다 그간 도와줬던 수많은 이들에게 돌린다. 그냥 공치사만 하고 간 이들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는 이들이 더 큰 힘이었던 말도 인상적이다.

책에서 가장 가슴을 울린 부분은 마지막 헌사다. 어릴 적 새벽 4시에 일어나길 원하는 아들을 위해 먼저 일어나 집안을 시작하고, 아들을 깨웠던 어머니 주소일 여사는 내 어머니와 비슷하다.

한국 드라마의 번창과 K-팝의 인기는 저절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누군가 앞서서 한글과 한국문화를 알린 사람이 있었고 여기에 호기심을 가진 현지인들을 통해 더 깊게 진행됐다. 이 책은 그런 과정을 선명하게 그려주었다.

- 중국 속 한류의 최전선에서 뚝 전사, 박신희 대표

2006년 영화기획사 사이더스HQ 부사장으로 베이징에서 살기 시작한 박신희 북경건의화서문화전매유한공사 대표는 명함이 많다. 코리아넷 재외동포기자, 재중한국인회 문화교육부위원장, 오피니언뉴스 북경통신원 등이 현직이고 통일부 해외통일위원, 차이나우박토크콘서트 사회자 겸 패널, 중국대학원대학교(UCS) 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북경과기 직업대학국제예술학원 객좌교수, SBS 한류자문위원 등도 그가 경유했던 길 가운데 있었다. '문화전매'는 우리나라에서 프로덕션 회사를 한자화 한 것이니, 그가 하는 일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양한 방송을 기획, 제작하고, 보급하는 일과 연예기획사 일을 겸한다.

그가 요즘 가장 공을 들이는 일은 K-팝 교육이다. 이미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명성을 얻은 중국인 연예인들의 인기가 그 가치를 말한다. 실제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 EXO 레이나 미쓰에이 지아나 페이를 꿈꾸고 있다. 박 대표는 중국에서 2년 배운 것보다 한국에서 3개월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을 체험해 한중간을 넘나드는 연예인들을 기획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한한령'이 큰 장애 요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 해빙 분위기를 타고 K-팝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억5000만 명의 정도 K-팝 마니아 있다고 한다. 그는 K-팝과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춘 이들을 키우는데 공을 들인다.

실질적 이윤을 추구하는 무역의 밑단에는 문화 등을 통한 상대국가에 대한 호감이 크게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허선행 학당장이나 박신희 대표는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묵묵히 해내는 이들이다.



조창완
중국자본시장연구회 고문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겸한 출판기념회 후 기념촬영. 허선행 학당장은 앞줄 오른쪽에서 5번째. 【사진=허선행 제공】



5월 18일 주중국한국대사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에 응한 박신희 대표(우측). 【사진=박신희 제공】

창간 5th을 축하합니다!

KRA 한국마사회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힘
함께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강해졌던 우리

다시 힘차게 내달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구매상한선 준수 건전한 여가생활의 시작입니다.



지난 5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환영 리셉션이 열리고 있다.

다보스 포럼서 나온 탄식 “탈세계화 전환점인가”

‘냉전 2.0’에 ‘경제적 철의 장막’까지... 신냉전의 상징적인 표어들이 붙은 이곳은 바로 세계의 경제 리더들이 모인 스위스 다보스포럼 회장이다. G7과 중·러간 갈등은 미중무역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행사는 우려와 탄식으로 막을 올렸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스위스 다보스 클로스터스에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 ‘2022 다보스포럼’은 ‘전환점에 선 역사: 정부 정책과 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에 탄식하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험대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 연구에 따르면 2019년 무역 정책 불확실성만으로도 세계 GDP가 거의 1% 감소했으며, 추가적인 봉쇄는 막대한 글로벌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러

지정학적 위기 경제 여파 강해져 새로운 ‘철의 장막’, 경제 블록화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19 영향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고, 식량과 연료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위협과 함께 세계가 “잠재적인 재난 합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대응 능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결과, 지리경제 분열의 위험이 급격히 커지며 방해받고 있다”며 “무역, 기술 표준, 보안에 대한 긴장이 수년 동안 증가해 현재 경제체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카푸아노 메리엇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는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치닫고 있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확실히 우

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는 경제가 다소 둔화하고 있다며 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더욱 신중해진 모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기술 회사 할로직의 스테판 맥밀란 CEO는 대규모 신규 투자에 대해 신중하고 추가 고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더 이상 이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 =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이러한 탈세계화를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전문가들의 관련 논의는 불이 붙었다. 이번 포럼이 막을 연 2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020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하는 올해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기

업 경영 지도자들과 투자자들이 30년간의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은 그 원인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여파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비롯된 전세계 공급망 혼란 등을 꼽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돌드만 삭스 인터내셔널 회장이자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됐고,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서 “이러한 모든 상황은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쇼어링(Onshoring·내수기업), 재국유화, 지역화가 기업의 최신 경향이 되어 세계화 속도를 늦추고 있다면서, “(세계화는) 민족주의, 보호주의, 원주민 보호주의, 맹목적 애국심, 때로는 외국인 혐오증과 마찰에 직면해 있으며, 무엇이 승리할지는 나에게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ING
NKING
ER

22



[사진=신화/뉴시스]

[다보스 포럼 : 비즈니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무역 잡화사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 기후위기 의제도 큰 관심

다보스 포럼이란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1971년 창립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연차총회로, 2008년 이후 세계 경제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곳이 됐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감염 확산 우려로 온라인 위주 행사를 이어왔으나,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대면행사로 돌아오게 됐다. 원래 1월에 열리는 행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규제가 풀린 봄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만 올해 행사에 참여하는 명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아직은 풀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참가자, 대표자, 취재원 등은 모두 예방접종 증명서류와 도착 전 바이러스 음성 테스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은 올해 다보스 포럼이 다루는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또 다른 주요 의제들은 러·우 전쟁과 이로 인해 촉발된 에너지 위기, 주요국 통화 긴축정책에 따른 경제 위축 우려 등이다. 여기에 매년 주요 의제로 다루지는 기후위기 의제도 빼놓을 수 없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촉발된 화석연료 부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올바른 투자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화석연료 투자 물결의 구실로 삼으려 하는데, 이는 우리의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문을 영원히 닫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어느 한 가지 문제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 중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후 보호 뿐만 아니라 세계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코로나19 · 기후위기에 경각심 당부 = 올해 세계경제포럼은 다보스 연차총회를 앞두고 5명의 전문가에게 올해 포럼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러·우 전쟁 영향과 코로나19의 여전한 위험, 지정학적 영향의 변화와 기후변화 이슈를 주제로 의견을 보내왔다.

먼저 <포린폴리시>의 주간 경제 팟캐스트 진행자이기도 한 아담 투즈(Adam Toze) 컬럼비아대 유럽연구소 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란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던 이란에 대한 제재와 비교했다.

퍼 웨버 다케다 대표는 제약회사들이 높은 잠재력 때문에 특히 중국이라는 국제시장에서 정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기업들의 초점은 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세계화로 옮겨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웨버 대표는 “간단히 말하면 세계화가 끝났고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화는 더는 진짜가 아니다”라며 “몇 년 전에 존재했던 세계화, 제한없는 무역, ‘세계는 평평하다’는 생각은 끝났다”고 역설했다.

그는 “역사학자가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우리는 여기서 이란식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란과 러시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이란 사람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보스 2022에서 논의될 또 다른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후 변화와 싸우고 화석 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지금까지의 진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사란 버로우 국제 노동조합 연맹 사무총장은 경제적 안정과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기후대응 노력의 완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더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가야 한다”며 “죽은 행성에는 일자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여러분은 오직 통합된 방식으로 만 위기 지역의 수렴을 다룰 수 있다”며 “재생 에너지에 더 깊이, 더 빠르게 투자하고, 실제로 이러한 산업에서 팬텀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비슷하게 조정된 세계적인 추진을 옹호하고 있다.

마르코 람베르티니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책임을 조직에 지게 하는 것

이며, 자연의 손실을 막고 되돌리기 위한 세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은 오늘날 기업들의 탄소배출 넷제로(Net-Zero) 상태 여부를 매우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에 대해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실 우리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연이 계속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 시스템에는 책임감이 없기에 우리는 자연을 위한 세계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당면한 도전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에게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우데자네이루에 본부를 둔 이가라페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일로나 사보(Ilona Szabo)는 다보스 2022에서 이 까다로운 문제를 다뤘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을 일축하는 것은 유혹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무모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록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할 책임이 없으며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와 그 변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세계 일부 지역의 정책 입안자들과 시민들은 바이러스를 끝장냈다”며 “우리는 매우 도전적인 순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우행은 계속해서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공급망 파괴가 그렇다”고도 덧붙였다. 김영채 기자



5월 22일 스위스 다보스 러시아 홍보관에서 '러시아 전쟁범죄의 집' 전시가 열리는 가운데 화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주최 측인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러시아 홍보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참상과 파괴를 묘사한 전시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다보스(스위스)=AP/뉴시스]

타케다는 공급망이 더 많이 중복되도록 하는 이중 소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인접국 아웃소싱에 대해 “나는 장기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글로벌 브랜드와 전략을 취했던 명품 회사들도 세계화에 대해 재고하고 있다. 발렌티노와 발망 라쉬드 모하메드 라쉬드 대표는 “사업이 지역화하고 있다”며 “현재 런던과 파리, 밀라노 매장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중순에 열린 <파이낸셜타임스>의 명품 사업 콘퍼런스에서 지난 2년간 기업들이 “지역을 보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지역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 또 작은 시장인 남미와 아프리카 등 각기 다른 시장에서 사람들은 이제 지역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지역 내 거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영채 기자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수출을 올리다

대한민국 수출의 고공행진,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함께 합니다.



지구60바퀴, 발로 뛴 무역 이야기

정병도 웰마크 사장의 글로벌 비즈니스 비망록 (16)

중남미 원주민들은 어디서 왔을까?

필자가 회사를 운영하며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중남미 국가들에 관한 논문을 쓰고 싶었다. 그 중 중남미 문화와 협상에 매력을 느껴 공부를 하게 되었다. 문제는 중남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와 사회상에 대해 공부했으나 해답을 얻기 어려웠다.

결국 그들의 문화 원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마야 문명들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 스페인 식민지 이전 그들의 문명을 알게 된다면 중남미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들 3개 문명별로 중남미 각 나라에 대한 협상 방법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웠다. 아즈텍 문명은 멕시코 지역, 잉카 문명은 페루·칠레·아르헨티나 지역, 마야 문명은 멕시코 남부와 중미지역으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알아볼 생각이었다. 문명에 따라 중남미인들을 블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 것이다.

중남미인들과 한민족의 유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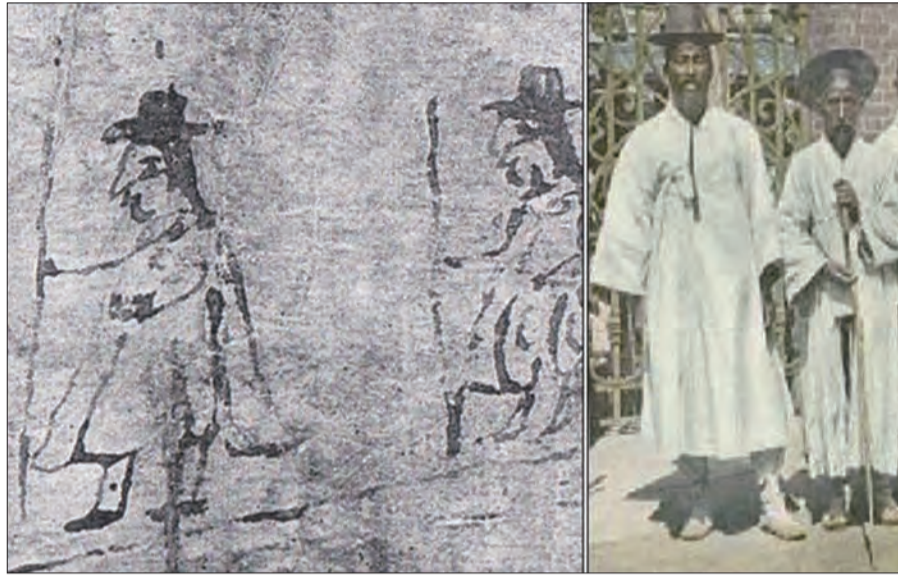
자료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책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중 중남미인들과 우리 한민족의 상관관계나 유사성을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몇 가지를 소개한다.

독일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훔볼트(1769~1859)는 "아메리카의 많은 신화, 기념물, 우주 발생에 관한 사고는 동아시아의 것과 놀랄 만큼 흡사하다. 이것은 태고 시대에 두 지역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중남미 사람들은 외모가 현재의 동양인과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생활도구와 풍습에서는 동북아인들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

미국 오리건 주의 포트 록(Fort Rock) 동굴에서 9000년 전의 것들로 추정되는 짚신, 방석, 그물, 삼태기 등이 발견됐다. 워싱턴 DC 스미소니언박물관에는 절구, 소쿠리, 베틀 등이 있다. 지금도 한국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다. 북미 원주민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업어서 키우고 실뜨기 놀이를 한다. 어린아이에게는 몽고반점도 있다.

중남미의 아즈텍 문명과 잉카 문명을 건설한 원주민들은 흰옷을 즐겨 입고 사원건물을 흰색으로 칠했다. 현재 남아 있는 아즈텍 문명 당시의 그림을 보면 남자들은 흰 도포를 입었고, 검은 갓 모양의 모자를 썼으며 상투를 틀어 올렸다. 여성 또한 한복과 유사한 옷을 입었으며 머리는 뒤로 모아 비녀를 꽂았다. 일부는 고구려 벽화에 나온 그림들과 매우 유사하다.

전 세계 사람들 중 상투를 틀고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은 한민족 외에 없다. 상투와 흰옷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의 국호에 들어 있는 '한(韓)'이나 '조선(朝鮮)'이라는 글자에도 태양신 숭배 흔적이 남아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한, 진한, 변한은 물론 대한민국에도 들어 있는 한(韓)에는 태양을 뜻하는 날일자(日)가 있고, 고조선과 조선의



왼쪽은 '멕시코 원주민 족장의 외출(17세기)' 그림(출처=우리민족의 대이동, 2019, 손성태)이다. 상투에 샷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걸친 모습이 오른쪽 조선 말기 우리 조상들과 비슷하다. 【사진=필자 제공】

조(朝)에도 태양을 뜻하는 날일(日)자가 있다. 날은 해와 동일한 의미이다.

현대과학이 밝혀낸 원주민들의 기원

우리 민족의 원류인 동이족이나 발해 유민 등이 알류산열도를 통하여 북미를 거쳐 중남미 등으로 이동했을 것이라 가설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류의 기원을 유전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중남미 원주민의 기원은 바이칼 호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혈청학자 마쓰모토 히데오는 그의 저서 '일본인은 어디서 왔는가'에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기원이 바이칼 호 지역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언어학자들의 주장이다. 언어학자인 강성원 박사는 "아메리카 대륙은 동이족(東夷族) 선조가 건너가 개척했으며 잉카, 마야어의 어원이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산스크리트 범어에서 양쪽의 언어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말한다.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는 "아스텍인들과 언어, 역사, 풍습이 일치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직접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며 "신라시대의 유물로 발견된 토우 가운데 중남미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개미핥기가 있는 것도 우리 선조들이 베링해협을 건너 멕시코까지 왕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민족의 이동 시기는 기원전과 후 또는 초기 삼국시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족이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후 10세기까지 2000년에 걸쳐 꾸준히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멕시코의 원래 국명은 '멕이코(Mexico)'이다.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아스테카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멕이콧'이라고 불렀던 말에서 유래했다. 멕이콧은 "멕이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맥족(緡族)은 요동, 요서를 중심으로 고조선을 건국하여 살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당연히 우리 민족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멕시코는 스페인에서 독립

한 후의 영어식 발음이다. 멕시코인들은 아직도 멕이코라고 한다. 또한 아즈텍도 단군이 도읍을 정한 곳인 '아사달'이 변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이동경로인 캄차카반도~알류산열도~알래스카~북미대륙~남미대륙에 남은 유적 중에 알류산 열도와 아즈텍에서 서양학자들에 의해 우리 민족만이 사용하는 온돌이 발견됐다. 멕시코 등지에서는 우리와 같은 규칙의 옷놀이,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등이 존재하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지게 등을 사용하였음도 확인됐다.

우리 상고사와 중남미는 어떤 관계

이런 주장들은 우리의 상고사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운 한국의 역사는 구석기, 신석기, 고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삼국시대로 이어진다. 그런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보면 환국, 배달신시(倍達神市), 고조선, 북부여, 삼국시대로 이어진다. 차이점이 많다. 우리가 배운 역사가 많은 부분 일제의 식민사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고조선의 도성을 평양으로 비정한 식민사관과 요동지역으로 보는 북한 역사학자들의 견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고조선의 토렘신앙인 곰과 호랑이를 웅족(熊族)세력과 호족(虎族)세력으로 보지 않고 동물로만 보는 사관은 편협하고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사기 내용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본다. 쑥과 마늘에 관해서도 그렇다. 단군신화에서 나오는 마늘과 쑥은 원래 한방에서 몸을 덥히고 냉을 다스리는 약으로 썼으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魔)를 물리치기 위해 먹었던 것이다. 전 세계에서 야생 쑥을 먹는 민족은 한국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마늘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이지만 최대 소비국은 한국이다. 무엇을 조리하든 마늘이 들어가지 않는 요리는 없다. 모든 것에는 연관성이 있기 마련이다.

환단고기에서 언급한 최초의 국가는 중앙아시아 동북부에 걸쳐 9000년 전에 존재한 환국(桓國)이다. 연합국가체제인 환국은 아

시아전체(남북 5만리 동서 2만리)를 통제한 나라로 6000년 전 대변혁(대홍수)때 멸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후 동북아에 세워진 한민족 최초의 국가는 배달신시다.

일부 언어학자들은 배달이 단군의 '단(檀)'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단은 박달 나무를 뜻하는데, 우리말의 음운법칙에서 박·백이 배로 변하는 사례는 많다. 배달의 '배'는 백(白)의 종성 기역(-)이 탈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미는 '밝다', '희다', '환하다'이다. 한국에서 '환(桓)'은 밝다는 뜻인데 환이라는 말이 배달로 이어졌다는 견해도 많다. 다양한 유래가 있지만 필자는 후자에 무게를 둔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환국시대는 3000여년의 역사와 일곱 번의 환인(桓因)들께서 다스린 시대다. 배달시대는 1600년 역사를 지녔으며 열여덟 번의 환웅이 다스렸다. 단군조선시대 2000여 년은 마흔일곱 번의 단군이 통치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중남미 국가로 이동한 한민족이 단순히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고도의 정치체제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멀지도 낯설지도 않은 중남미 시장

이상의 이야기들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오랫동안 중남미인들과 교류하면서 확실히 느낀 것은, 중남미인들의 정신과 문화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들에게 한민족의 DNA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스페인의 정복 이후 큰 변혁이 있었지만, 그들의 조상이 남긴 풍습과 문화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중남미 원주민들과 우리의 조상이 같다고 생각하니 매우 놀랍고, 한편 가슴이 아프다. 그들의 정신과 문화가 스페인 점령군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현재 그 흔적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출장길에 에티오피아 국립박물관에 들러 인류의 조상인 루시(RUCY)를 보았는데,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중남미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다가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남미는 결코 멀지도 낯설지도 않은 시장이다.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정병도 사장은 1999년 4월 인조피혁제조 및 바닥재 수출회사인 웰마크(주)를 창업한 이후 경쟁기업들이 주목하지 않던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주목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지구 60바퀴를 돌 만큼의 비행 마일리지를 쌓으며 '발로 뛰는' 해외마케팅을 실천했다.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경기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을 공부했고 고려대학교에서 국제경영석사 과정을, 청주대학교에서 국제통상 박사과정에서 이문화 협상(CROSS CULTURE NEGOTIATION)을 공부했다. 저서로 '마지막 시장-아프리카&중남미' 등이 있다.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한중FTA 원스톱 서비스
fta1380.or.kr

“ 차이나는 중국 수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 ”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컨설팅은

① 한·중 FTA/RCEP 활용 ② 중국/RCEP 회원국 인증 획득 ③ 지적권 보호 및 계약서 작성
④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 등 중국/RCEP 수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컨설팅

현장방문 컨설팅은 10일(MD, Man Day) 범위 내에서 이용 업체가 필요한 컨설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

매출 50억원 이하의 기업은 무료이며 50억원 초과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1MD당 평균 40만원)의 10 - 50%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TEL : 국번없이 1380 E-mail : chinadesk@kita.net
Homepage : fta1380.or.kr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지원 OK

1 3 8 0

차이나데스크는 한중 FTA/RCEP 활용 및 대중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 제공합니다.

- ① 한·중 FTA/RCEP 활용 상담 컨설팅
- ② 중국/RCEP 회원국 인증 상담
- ③ 비관세 장벽 애로 해소 지원
- ④ 중소기업 원산지 관리 지원
- ⑤ 중국시장 동향 및 정보 제공



FTA 몰라서 깨질 뻔한 유럽 수출 살려내

J사는 1994년 설립 이후 다양한 측정 장비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LVDT, HBT, 디지털 선형센서, 전자 마이크로미터, 전자 경사계 등이 주력제품이며, 국내 또는 해외에서 원재료를 구매해 완제품을 제작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 등 국내 대기업 이외에도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J사는 2021년에 독일 바이어와 계측기 수출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기한 거래조건을 갱신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새 요건으로 바이어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어렵다면 해당서류를 발급하면 적용할 수 있는 관세 혜택(관세율 3.7%)만큼의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J사는 종업원 총원이 15명인 중소기업이었고, 직원 대부분이 연구개발(R&D)과 생산에 집중한 탓에 그동안 수출업무는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관성적으로 진행하여, 직원들의 FTA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가를 제시해 따낸 계약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단가를 인하하면 이익을 낼 수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단절 현상으로 인해 원재료와 원자재 가격도 급등한 상황이었다.

한-EU FTA 적용 시 3.7%→0%

그렇다고 바이어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J사는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FTA활용지원 사업을 떠올렸다. FTA종합지원센터에서는 수출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FTA 업무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방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사는 곧바로 1380 콜센터로 전화해서 현장방문 컨설팅을 요청했다.

컨설턴트가 J사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수출 계약 품목은 계측기의 여러 품목 가운데 하나인 수준기(水準器, Levels)이다. 건설하는 면이 평평한가 아닌가를 재거나 기울기를 조사하는 데 쓰는 기구이다. 양 끝을 막고 큰 원호(圓弧) 일부를 이룬 유리관 속에 일정한 기포를 남겨 두고 에테르 또는 알코올을 넣어서 만든다. 기계를 수평으로 놓았을 때의 기포의 위치를 0점으로 하는 눈금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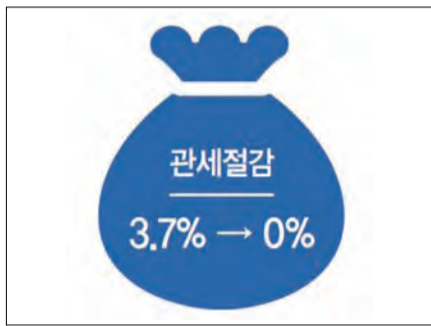
J사의 수준기는 수준 측량용 광학기기로, 수평으로 설치한 망원경으로 수평면을 시준(視準)해 이것을 기준면으로 해서 높낮이 차이를 측량한다.

수준기의 EU 측 HS코드는 제9015.30.1000호이다.

EU의 기본관세율(MFN 세율)은 3.7%이며, 한-EU FTA의 협정세율은 0%이다. 수입관세가 2% 인하되면 현지 시장에서의 내수 가격은 10%가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관세 절감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수준기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

■ 수준기(水準器) 한-EU FTA 적용 효과



부터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즉, 4단위 세번 변경기준(CTH)을 충족하거나 역외산 재료의 최대 허용 비율이 45% 이하를 충족(부가가치기준)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J사는 생산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이 원재료로 수준기를 제조해 수출한다. 따라서 수준기를 구성하는 부품들의 원산지와 HS코드를 모두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중 어느 것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컨설턴트는 이러한 FTA 업무절차를 J사 직원에게 설명한 뒤 원재료 구매 협력사에 연락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때 협력사들 또한 규모가 영세하고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협력사들은 자사의 영업기밀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발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평소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쌓아야만 하며, FTA 교육을 정기적으로 함께 진행해 업무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협력사 지원이 있어야 원산지 판정

컨설턴트는 발급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토대로 ▷소요부품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원재료 구매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려면 부분품의 HS코드가 완제품의 HS코드와 같으면 안 된다. 부분품들이 합쳐져서 완제품이 되면 HS코드가 바뀌는 변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려면 완제품의 공장도가격을 100원이라고 했을 때, 역외산 재료(한국산 및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산)의 가격 비중이 45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검토 결과, 컨설턴트와 J사 직원은 수준기의 원산지가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 한국산임을 확인했다.

B/L은 원산지증명서로 쓸 수 없다

한편,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작성된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서식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존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신고서'라고도 한다.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템프로 찍거나 인쇄하는 방법으로 수출자가 작성한다. 신고자가 수기로 작성할 때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해야 한다.

인정되는 상업서류는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인도 증서(Delivery Note) 등이며,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는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기타 별도 작성한 서류 등이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로부터 12개월이며,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EU 회원국 27개국에 수출할 때 발급할 수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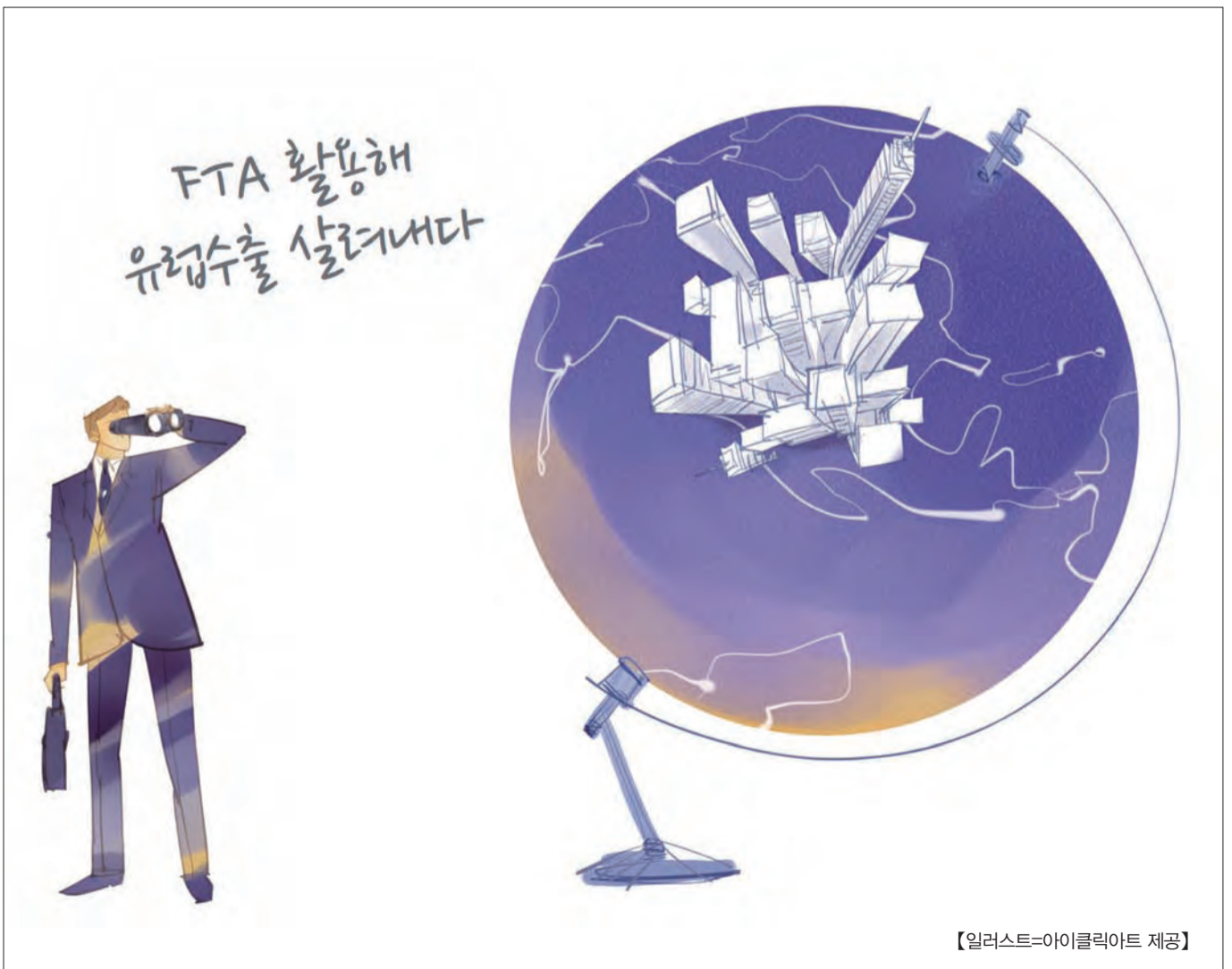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한다. 6000유로 이하의 수출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기존 단가로 계약 성공, 수출 확대 기대

컨설팅 결과 J사는 독일 바이어에게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고, 이를 토대로 J사는 기존 단가로 재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향후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건에 대비해 한-EU FTA 품목별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로 했다.

J사 담당 직원은 기존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절차 등을 수행하는데 애로를 겪었으나 컨설팅을 계기로 해외 바이어의 요구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07

코로나19 이후 직장 에티켓

경영자들에게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선물이 있다. 모든 사업이 타격을 받고 물류비가 폭등하여 글로벌 비즈니스가 망가지고 있지만 대면 근무가 아닌 재택 등이 일상화되면서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투명해진 것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존에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일을 많이 하고 성실하며 애사심이 뛰어난 직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재택으로 개인별 성과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팀별 공동 업무에 대한 기여도가 보다 정확하게 햇빛 아래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손가락 얹어 물어가던 직원이 사라진 것이다.

승진하려면 업무가 없어도 금요일과 명절 전날 늦게까지 야근하는 위장(?)을 통해 리더의 마음을 사로잡으라고 외치던 비법은 '흘러간 옛 노래'가 된 것이다. 집에 안 가는 사람이 이긴다는 승진마법이 코로나19에 KO당한 격이다.

비대면 업무추진이 늘면서 임직원 간에 에티켓도 크게 바뀌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절대로 근무시간 이후에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금요일 퇴근 이후 월요일 출근 전까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전화를 하지 말라는 것. 젊은 세대는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체크하거나 물어보는 것조차 싫어한다. 선의로 업무를 도와준다고 자료를 보내거나 업무와 관계없이 말을 거는 것도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본다.

직원에게 따라 주말에 여가를 같이 하자는 것은 거의 테러로 인식한다고 한다. 최근 어느 강연에서 젊은 직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을 들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지를 전화로 물어보는 상사를 만날 때 최악이라고 한다. 과도하게 끈끈한 관계는 부담으



로 작용하고 혼자임이 편하다고 강조된다. 코로나19로 굳어진 '혼밥'은 이제 트렌드다. 예전에는 혼밥이 쑥스러워 칸막이를 하고 심지어 커튼까지 내렸지만 이제는 혼자 식사하는 게 전혀 거리낌이 없는 단계에 와 있다. 부서끼리 같이 점심을 하거나 저녁에

회식을 하는 것을 오히려 최소화해야 한다. 식사하면서 업무를 이야기하거나 조언하는 것도 환영받지 못한다. 혹시 부서장으로서는 비용을 부담하면서 직원들과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면, 부하 직원들이 의무감에 응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부득이하게 연락할 필요가 있다면 전화보다는 SNS를 이용하라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권면한다. 기본적으로 MZ세대들은 전화를 통한 소통을 싫어한다. 질문 즉시 바로 대답하고 결정해야 하는 전화를 통한 소통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여 일부 젊은 직원들은 '전화 공포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초기화면에 전화 메뉴가 없다고도 말한다. 젊은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만약 전화로 단번에 속 시원하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늙은 것이라고.

시니어 직원들은 젊은 층에 맞춰 변화하는 직장문화가 억울하다. 왜 무조건 우리는 당해야 하는가?

한 회사의 신입직원 교육에 '시니어 직원의 이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간 적이 있다. 얼핏 참신해 보인다. 연차 높은 직원들이 MZ세대를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말고 그 반대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상호간 소통을 위해 시니어 직원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업무관행을 신입들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시니어 직원의 이해는 양념은 될 수 있지만 큰 흐름이 되면 곤란하다. 변화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분명하게 말한다. 코로나19는 변화의 속도와 그에 대한 수용 의무를 더하기에서 곱하기의 수준으로 높였다. '전화로 업무금지'라는 구호가 곧 등장할 수도 있다. 조직의 리더라면 '내가 시대변화를 놓친 것은 아닌지' 수시로 되짚어 봐야 한다.

민영채 | W커뮤니케이션 대표



최영진의 풍경

정미소 시리즈_2

쇠락한 성(城)처럼 묵직한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는 마을 정미소. 그러나 정미소는 아직 거기에 있다. (사진가)

미국, 대중국 관세 완화 추진할 듯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경제망〉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사우스코트에서 가진 인플레이션 관련 연설 후 기자회견, 의류, 가구 등 모든 품목에 대한 중국 관세 철폐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중 무역전쟁 기간(2018~2020년) 동안 미국의 중국 수출은 2017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았고 미국 일자리는 24만 개 이상 사라졌으며 미국 기업은 1조7000억 달러의 손실을 봤고 무역적자를 줄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 경제 및 무역 협력의 본질은 상호 이익이고 무역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중국에도 불리하고 미국에도 불리하며 세계에도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윤석 기자

중국, 이제 먹으면서 몸 관리한다... 뷰티식품 인기

해외 브랜드가 뷰티 식품시장 주도 지난해 히알루론산 식품 첫 출시

뷰티식품은 티몰 플랫폼의 2020년 '6.18 쇼핑축제' 기간 중 3대 인기 품목 중 하나였을 정도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작년에는 히알루론산 제품이 등장하면서 뷰티 식품시장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 **해외 브랜드가 주도하는 시장** = 중국에서 뷰티식품이라는 개념은 1990년대부터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소비자의 나이가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콜라겐은 뷰티식품 시장의 스타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중국 뷰티 시장은 해외 브랜드가 주도해왔다. 일본의 풀라, 팬슬, 호주와 스위스와 블랙모어 등이 중국 시장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신규 브랜드들이 대거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호주 프리미엄 뷰티식품 브랜드 바이다글로우가 소재, 공급의 강점 및 전문 실험 개발을 기반으로 한 해양 콜라겐 파우더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021년 중국 '3.8 여신의 날 판촉 축제(3월 1~8일)' 기간 중 해양 콜라겐 파우더의 매출이 1억 위안을 돌파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 **중국 토종 브랜드들의 반격** = 2018년 명주는 콜라겐 펩타이드 젤리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미용 및 노화방지 효과가 있어 중상위층 여성층을 목표 고객으로 삼고 있다. 최근 명주는 성분을 개량한 빨강 포장지의 업그레이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중국의 유제품 선두 기업 이리의 산하 브

랜드 신스지도 2019년 11월 콜라겐 음료제품을 내놨다. 이 제품은 제품 1개에 일본산 콜라겐 펩타이드 4000mg를 첨가한 혼합과일맛 제품이다.

2020년에는 니코틴산아미드를 함유한 뷰티식품도 출시됐다. 그해 11월 중국의 시리얼 브랜드 웨이커는 니코틴산아미드가 포함된 식사 대용식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혼합곡물분말로 '검은깨+검은콩', '팥+올무', '귀리+퀴노아' 3가지 맛이 있다. 제품의 단백질 함량이 중국 고단백 기준의 2배이며 식이섬유 함량이 100g당 11.4~11.9에 이른다.

작년 3월 중국의 뷰티식품 전문 브랜드 즈메이탕도 니코틴산 아미드를 핵심 성분으로 효모, 앵두즙 및 콜라겐 등 6가지 성분을 첨가해 피부 화이트닝에 효과가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중국 차음료 유명 브랜드인 사차 또한 2021년 5월 니코틴산을 함유한 기포수를 출시했다. 니코틴산 및 비타민B6, 과즙을 첨가해 제품 1병에 비타민이 100mg 들어있으며 무당, 무칼로리, 무지방의 특징을 홍보하고 있다.

● **히알루론산 뷰티식품의 등장** = 히알루론산(HA)은 미용 및 의료미용 원료 중 하나로 화장품 및 미용기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2021년 1월 중국 국가 위생건강위원회는 히알루론산이 일반식품에 첨가되는 것을 허가했다. 이로써 중국의 유명 히알루론산 원료 회사인 화시바이오가 식품 시장에 대거 진출하기 시작했다.

화시바이오는 2000년 설립됐으며 세계 최대의 히알루론산 개발, 생산, 판매 기업이다. 현

재 전 세계 히알루론산 시장의 47%를 차지하며 85개의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 의약품, 의료미용, 스킨케어, 식품 등 다양한 히알루론산 원료 제품의 규격만 200개가 넘는다.

지난해 1월 화시바이오는 중국 첫 히알루론산 간식 브랜드인 헤이링을 통해 태블릿, 소프트캔디, 음료 등 6가지 제품을 출시했다. 관련 제품은 자사가 생산하는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하며 건강한 다이어트, 수면 보조, 간 보양, 미백 향산화 등의 효과가 있다.

이 회사는 또한 같은 해 3월 중국 내 첫 히알루론산 생수 제품인 수이지취안을 선보였는데 현재 티몰, 샤오홍수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이 제품의 성분은 정제수 및 히알루론산으로, 첨가제와 방부제가 들어 있지 않고 무균 포장했다. 1병당 히알루론산 66mg이 함유돼 있으며 무당, 무지방, 제로 칼로리여서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8월에는 원더랩이 히알루론산 소프트 캔디를 출시했다. 캔디 1개에 히알루론산 12mg과 복숭아 과즙이 첨가돼 있다. 피부 수분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9월에는 광명유업이 여성 소비자들을 겨냥해 히알루론산 우유 제품을 개발했다. 제품에 독일산 콜라겐 펩타이드, 히알루론산, 그린베리 분말 등을 첨가했다. 또한 한커우 얼차는 중국 최초로 병당 68mg의 히알루론산을 함유한 기포수로 여성 공략에 나섰다.

● **우리 기업 시사점** = 중국 뷰티식품 시장은 내용과 포장에서 점차 간식의 형태를

피고 있으며 건강식품과 간식 사이의 경계도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화장품과 뷰티식품 소비층이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식품과 뷰티 분야의 융합은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의 히알루론산 원료의 생산 및 판매국으로, 2019년 기준 세계 히알루론산 원료 판매량의 81%를 차지했다. 중국산 식품급 히알루론산 원료가 해외 브랜드에 공급된 지 수년이 지났고 상위 산업사슬이 발전한 것을 기반으로 향후 중국 히알루론산은 식품 분야에 활용돼 관련 제품이 대거 출시될 전망이다.

산동성 뷰티식품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이들은 음식이나 천연 성분을 통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기를 원하며 빠르고 편리한 미용 방식을 선호한다. 또한 뷰티식품의 맛과 안전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기존의 알약이나 드링크제보다 소프트캔디, 물 등 간식 형태가 각광받고 있다. **침다오 무역관**

'식용유 대란' 숨통 트이나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재개

인도네시아 정부가 5월 23일부터 식용유로 쓰이는 팜유 수출을 재개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던 팜유 원유와 대부분 파생상품 수출 금지를 이날 전면 해제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식용유 부족 사태와 국내 팜유 산업 종사자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팜유는 식용유, 가공식품 제조 등의 원료로 쓰이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팜유시장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은 4월 28일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수출을 추후 고지할 때까지 금지하기로 했다"며 "인도네시아 내 식용유가 저렴한 가격에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 시행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작년년부터 팜유 국제가격이 상승했는데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식용유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해바라기씨유 수출 1·2위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이 타격을 입은 점도 식용유 대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생산자들에게 내수 시장을 위해 재고를 비축하도록 요구했지만, 가격 급등을 막지 못하자 수출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 식용유 가격이 서서히 안정화하는 가운데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무역수지 흑자 폭 감소가 우려되자 이날부터 수출을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마지막 공중전화’ 박물관으로 미국 뉴욕시의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당국은 5월 23일 뉴욕 7번 애비뉴와 50번가 근처에 있던 이 공중전화 부스 철거 작업을 마쳤으며 이를 뉴욕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이 공중전화 부스가 박물관에서 ‘컴퓨터 상용화 이전’ 도시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통상지원센터를 만나는 세 가지 방법

메인 홈페이지



통상보고서, 통상뉴스 및
워싱턴·EU 통상정보를 한 눈에!

01

통상뉴스레터



매일 하루의 주요 보고서와
기사를 한 눈에!

02

카카오톡 채널



한 주 간의 주요 통상이슈와
보고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03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홈페이지(tongsang.kita.net)에서!

농업 현대화 추진 중인 미얀마, 한국 농기계 원한다

금융서비스와 부품 공급 확대로 농기계 시장점유율 제고 필요

‘잠재적 농업 대국’ 미얀마에서 농업은 경제를 이끄는 주요 축이다. 그만큼 농기계 시장이 확대될 여지가 큰데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농업 대국의 가능성 = 미얀마는 농업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나라다. 무엇보다 지리적, 환경적 조건이 훌륭하다.

기후적으로는 고온의 열대 날씨를 기본으로 혹서기(3~5월), 우기(6~10월), 건기(11~2월)가 반복되는 환경으로, 벼를 비롯한 각종 곡물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에야와디강 유역의 풍부한 수량 덕분에 농업용수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도 충분하며 토지도 비옥하다.

국토 면적이 67.6만 km²로 한반도의 3배에 이르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덕분에 재배환경이 다양하다. 남부 에야와디 농업지대, 중부 마궤 농업지대, 북부 산악의 산 지역 농업지대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남부지역에서는 주로 벼, 기름야자, 과일, 중부지역에서는 콩류와 유지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북부 산악지역에는 야채류 농사가 활발하다.

이 같은 유리한 조건 덕분에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 시기인 1948년 한때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다. 1962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행된 고립정책으로 해외판매가 급감하면서 쌀 수출국 1위 자리는 상실했지만 작물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아세안(ASEAN)의 통계자료에도 미얀마의 옥수수과 콩류 생산량은 아세안 국가 중 2위, 벼 수확량은 4위였다.

현재 재배되는 작물 가운데 쌀과 콩류 및 일부 과일 등이 수출되고 있는데 특히 쌀의 경우 매년 전체 수확량의 25~30%가 해외에 판매될 정도로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도 상당하다. 미얀마 국내 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이상이며 농업 종사자도 전체 노동인구의 68%에 달한다. 농업이 미얀마를 대표하는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인 셈이다.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기계화의 필요성 = 미얀마가 천혜의 환경조건을 갖춘 농업 중심국인 것은 맞지만 실제 생산 및 수출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뒤지는 편이다. 일단 작물 생산량이 압도적이지 않고 작물 생산이 가능한 경지면적도 전체 국토의 절반 이하인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낙후된 생산구조와 미흡한 농업 현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전체 농가의 80% 이상이 10에이커 미만의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영세농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경작지에서 대량의 작물을 재배하는데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낮은 생산성보다 시급한 문제는 농업 기계화다. 미얀마 농업은 기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2006년까지 보급된 농기계는 파종기 11만4000대, 트랙터 1만1000대, 로터리식 소형 농기계 57만1000대 등으로 경지면적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심지어 2019년까지도 농기계 보

급률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채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농기계 수요와 수입산 중심의 공급시장 = 미얀마도 한국처럼 벼, 콩, 깨 등의 곡물을 주로 재배하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은 농기계 역시 우리 농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경운기, 트랙터, 탈곡기 등이다. 특히 벼 농사가 활발한 삼각주 지역에서는 트랙터와 부속품이 가장 많이 판매된다. 물론 중부 건조지대에서는 이륜 트랙터보다 4륜 트랙터를 더 선호하는 등 지역별 재배환경에 따라 농기계 수요가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문제는 미얀마가 대부분의 농기계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영세 농가가 대부분인 미얀마 농촌은 소득수준도 높지 않아 수입산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미얀마 농촌의 농기계 보급이 지지부진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미얀마에서 자체 생산되는 농기계가 없지는 않다. 지금도 농업축산관개부 산하 농업기계부가 관리 및 운영하는 미얀마 농기계 생산공장에서 각종 경운기, 트랙터, 재배용 롤러보트, 이앙기, 콤팩트, 탈곡기 등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제조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자국 제품을 농사에 활용할 경우 생산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당장 자국 농기계 보급을 늘려 수입산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의 농기계 구매 지원과 수입 증가 = 미얀마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농기계 수입 및 보급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2011년 출범한 민간정부는 농업 현대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세무 과제와 지원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는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농가 금융 지원 제도의 일종인 농기계 구매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 농가의 농기계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계 구입을 원하는 농가가 요청할 경우 정부가 지불을 보증해 구매대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구성된 농민단체 회원이 농기계 구매 대출을

요청하면 농업축산관개부가 지불 보증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트랙터나 콤팩트 같은 고가의 농기계를 살 때 총액의 10%만 계약금으로 선납하고 잔금은 정부 보증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 지원제도 덕분에 상당수 영세 농가도 수입산 농기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덕분에 농기계 수입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얀마 정부는 농기계 보급률 개선을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많은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에게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 대동공업 등이 참가해 현지 농가에 할부로 제품을 인도하거나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미얀마 상무부는 수입 제품의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예 2017년 11월 외국 기업과 현지 기업이 농기계 수입 및 판매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개방적 보급정책과 수입산에 대한 신뢰 덕분에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이 미얀마 농기계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태국은 국경무역을 통해 제품 운송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시장을 선점하며 수입 1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어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들이 주요 농기계 공급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주요 브랜드로는 구보타, 이세키, 소날리카, 안파르, 뉴홀랜드, 존디어, 마힌드라 등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일본계 브랜드 구보타의 경우 태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동평, 쉬핑, 유정 같은 중국 브랜드도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제품 중에는 대동공업 농기계가 우수한 품질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망과 우리 기업 시사점 = 과거 미얀마 농촌에는 농번기에도 일당을 지급하고 고용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풍부했다. 그러나 경제개방 이후에는 대도시와 건설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노동력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태국, 중국 등으로 향하는 이주 노동자도 급증하면서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덕분에 농촌의 기계화 필요

성도 더욱 절실해졌다.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핵심 부처인 농업축산관개부는 2030년까지 농업 기계화율을 6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군부가 구성한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SAC)는 본격적인 농촌 현대화를 위해 아예 농촌협동조합개발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농촌 개발과 농기계 보급 확대가 정권과 무관하게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기계 공급시장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조사기관 캔리서치는 미얀마의 농기계 매출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27.1%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선결과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농기계를 유통 중인 미얀마의 G사 관계자는 “고가 브랜드인 일본 구보타(Kubota)는 농기계 첫 구매자에게 50%만 대금을 받고 잔금은 2년에 걸쳐 나눠 받는 방식을 써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고가 제품 특성상 금융 서비스와 결합된 판매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실제 미얀마 영세농가들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등 비용 절감 문제에 민감한 편이다. G사 관계자는 “한국의 대동공업 제품은 은행의 할부금융을 바탕으로 좋은 판매실적을 올렸다”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된다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 제품의 판매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품 공급 확대 역시 중요하다. G사 담당자는 “일부 미얀마 고객들로부터 중국이나 일본 농기계 부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반면 한국 부품은 보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부품 공급을 늘리고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개선한다면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곤 무역관



소년의 추모 5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 소년이 러시아군과 전투 중 숨진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이름이 적힌 추모 국기들을 바라보고 있다.

【키이우=AP/뉴시스】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함께가는 동반차 하모니렌트카!



복잡한 신용심사 없이 누구나 쉽게!

대한민국 모두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렌트를 할 수 있도록
하모니렌트카가 함께하겠습니다.

하모니렌트카는 **다릅니다.**



무심사

복잡한 심사 없이 '운전경력 1년 이상
소득 확인 3개월 이상, 만 26세 이상' 조건만
해당하신다면 누구나 렌트가 가능합니다.



꼼꼼한 관리

하모니렌트카만의 꼼꼼한 정비와 관리로
고객님께 최고의 차량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견적

하모니렌트카 실시간 견적 시스템으로
원하는 차량의 렌트료를 직접 확인하세요!

하모니렌트카는 고객님의 신용이 아닌
고객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I'll be
your
companion

커피콩 없는 커피... 미국 '대체 커피'가 뜬다

국제적 원두가격 인상 큰 영향
환경 덜 파괴하며 생산지속 가능

미국에서 '커피빈이 없는 커피'(Coffee free Coffee). 즉, 커피의 향과 맛은 같지만 씨앗이나 허브 등으로 만든 '대체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식주의자들이 늘면서 버거킹의 임파서블 버거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대체육이나 대체 해산물, 대체 우유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 것처럼 대체 커피 시장이 커지고 있다.

스타벅스의 본고장 시애틀에서 창업한 대체 커피 스타트업 애토모커피는 2019년 브랜드 런칭 후 작년 9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콜드브루 대체 커피를 제한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정식 판매를 준비 중이다. 애토모커피는 대체 커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기존 커피 시장의 장벽을 넘기 위해 워싱턴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커피와 애토모커피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 70%의 선택을 받으면서 전통커피업체에도 도전장을 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애토모커피가 일반 커피보다 부드럽고 신선하며 탄맛이 덜한 것 같다"고 밝혀 대체 커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미국에서 대체 커피가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원두 가격 인상을 들 수 있다. 기

후 변화에 따른 미래 먹거리 고민은 커피업계에도 예외가 아닌데 국제적으로 커피 원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상업거래소(ICE)에서는 국제 원두 가격의 기준인 커피C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2.33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배 올랐다.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최대의 커피 산지로 전 세계 물량의 40%를 생산하는 브라질에 한파와 가뭄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라니냐 현상으로 우기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면서 생산량 회복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스타벅스 등이 커피 가격을 올리면서 이미 예고됐던 커피 가격 폭등은 현실화되고 있다. 미 농무부가 2026년까지 미국인들의 커피 소비량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국제커피기구(ICO)는 "세계적으로 커피 원두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상황이라 원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대체 커피를 반기는 요인이다. 커피나무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성숙기까지 2년이 넘게 걸려 공급 부족이 발생하기 쉽고 빠른 대처가 어렵다. 또한 커피 열매가 상하지 않게 재배하려면 농약은 필수적이어서 환경운동가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대체 커피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했다. 원두를 사용하지 않고 씨앗이나 허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경을 덜 파괴하며 지속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애토모커피에 따르면 대체 커피 콜드브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전통 콜드브루를 만들 때보다 94%나 적었고 탄소 배출은 93%가 덜했다.

커피 원두 잔류 농약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유기농 원두를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이유다. 또한 커피는 이노 작용을 촉진시켜 체내 수분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체내 무기질 균형을 깨뜨려 눈 떨림이나 근육 탈수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대체 커피업체들은 이런 건강상의 단점들을 보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맛도 빼놓을 수 없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전통 커피를 압도한 애토모커피는 커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빅5'라고 불리는 바디, 색, 향, 맛은 물론 생체 활성 영양소까지 구현했다고 밝혔다. 애토모커피를 추격하는 경쟁 업체들은 맛과 풍미를 더욱 개선한 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스타티스타가 지난해 '국제 커피의 날'(10월 1일)을 기념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물보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를 보면 1위가 '커피'(59%)였고 '물'(58%), '소다 등 음료수'(53%), '차'(47%), '맥주'(31%), '와인'(2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미커피협회(NCA)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미국인들의 가정 내 커피 소비가 기록적으로 증가

했는데 커피를 마시는 인구 중 85%가 '집에서 하루 한 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응답자의 하루 평균 소비량은 약 2컵으로 조사됐으며 60% 이상의 미국인이 아침에 물 대신 커피를 마셨다.

대체 커피 시장은 원두 생산국이 아닌 한국이 도전할 만한 분야다. 코로나19로 커피 소비와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공급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커피 산지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체 커피 시장은 그만큼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커피의 장점도 많지만 커피를 마시는 데 따른 칼슘 손실, 카페인 과잉 반응, 잔류 농약 원두를 장기간 음용하는 데 따른 문제 등 여러 단점도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에서 다수의 커피 전문점을 운영 중인 커피 연구가 K 씨는 KOTRA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 비해 소비자들이 건강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면서 "매출 지표는 보면 디카페인 커피와 마차 같은 음료, 비건 디저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체 커피를 메뉴에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디트로이트 무역관

중국, 냉동식품 인기 상승... "사 먹은 적 있다 98%"

까다로워지는 관리감독 유의해야

중국에서 1인 가구 증가, 도시 젊은 층의 식생활 변화, 요식업의 성장, '게으름 경제'의 등장으로 냉동식품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중국 냉동식품 시장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0년에는 1393억 위안에 달했다. 현재 추세라면 2024년에는 1986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아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의 98%가 냉동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 시장 침투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냉동식품은 어묵완자 같은 튀김(샤브샤브)였으며 육류, 물만두, 탕위안, 튀김류, 밀가루로 만든 간식류, 해산물이 뒤를 이었다.

98%에 이르는 침투율에도 1인당 평균 소비량은 아직 적은 편이다. 2019년 기준 중국의 1인당 냉동식품 소비량은 9kg으로 미국(60kg), 유럽(35kg), 일본(20kg)보다 크게 낮다.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들의 생활리듬이 빨라지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며 콜드체인 등 냉동식품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냉동식품 소비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연령대별로는 22~30세 소비자의 냉동식품 구매 욕구가 가장 커서 60.6%가 냉동식품을 '매우 구매하고 싶다'고 밝혔다. 21세 이하와 31~40세도 각각 57.9%와 56.7%가 냉동식품을 매우 구매하고 싶어했다. 51~59세와 60세 이상 소비자는 냉동식품 구매욕구가 가장 적었다. 현재 중국 냉동식품의 주요 소비연령은 40세 이하인 것이다.

중국 소비자들이 냉동식품을 접촉하는 경로는 마트 시식 코너, 지인 소개, 숏클립 플

랫폼, 라이브커머스, TV 광고 등이었다. 소비자의 56%가 '마트 시식 코너'를 통해 냉동식품을 접했다고 밝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지인의 소개'로 45.1%였고 '숏클립 플랫폼'(44.2%), '라이브커머스'(30.6%), 'TV 광고'(27.6%), '콘텐츠 광고'(19.5%), '기타'(3.1%) 순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1, 2위가 모두 오프라인을 매개로 한다는 점이다.

구매요소를 살펴보면 59.3%의 소비자가 '냉동식품의 품질'을 중시한다고 밝혔고 그 뒤를 '맛·식감'(58.9%), '가격'(49.8%), '브랜드'(49.6%), '영양성분'(45.2%), '원료'(30.3%), '외형'(23.3%), '기타'(1.5%)가 차지했다. 반면 만족도는 '가격'이 가장 높았

다.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가격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3.95점, 맛·식감 3.95점, 영양 성분 3.93점, 품질 3.80점, 외관 3.75점을 각각 기록했다. 소비자들은 냉동식품의 영양성분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는데 약 10%는 냉동식품의 영양성분에 1~2점만 부여했다. 이는 중국 소비자들이 냉동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도 점차 강력하고 촘촘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꾸준히 친환경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 또한 식품 표준과 관리감독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2010년에 도입한 상품 이력 추적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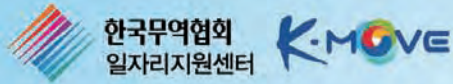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일부 주요 도시에서 식품, 농산물, 의약품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이력추적마크(QR코드)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시는 2020년 11월부터 수입 냉동식품의 QR코드 부착을 의무화했다.

그만큼 중국에 냉동식품을 수출할 때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출 초보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포워드 업체를 활용하거나 기존에 한국 식품을 수입한 경험이 있는 바이어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수입한 냉동식품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사검역이 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진 만큼 사전에 철저한 서류작업을 통해 우선 소량을 통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렌 무역관



동남아시아 게임 폐막

5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31회 동남아시아(SEA Games 31) 게임 폐막식이 열리고 있다. 베트남이 종합 우승(금205, 은125, 동116)을 차지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32회 대회는 캄보디아에서 열린다. 【하노이=AP/뉴시스】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www.jobtogether.net



기업과 인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웃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사업 안내



무역·IT 전문 인력 추천

- 한국무역협회가 6개월 이상의 전문 교육을 통해 양성
- 실무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무역 / IT 전문가 추천



국내·해외 채용 박람회 개최(무료)

- 우수기업과 인재가 참가하는 무료 채용박람회
- 사전 매칭을 통한 면접 중심 진행(개별 면접 공간 제공)



일자리 상시 알선 및 지원(직업상담사)

-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 맞춤형으로 알선
- 채용 및 취업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 실시



온라인 취업 포털 "잡투게더" 운영

- 한국무역협회 일자리 지원 사업 종합 안내
- 구인·구직 무료 등록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채용취업문의: (국내) 02-6000-7608~10, tradejob@kita.net | (해외) 02-6000-7136~7, kmovekita@kita.net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2층 상사전시장 B27~B29호

‘디지털달러’는 위험한가... 월가 “은행 기능 위축” 우려

“은행 안 거치고 개인에 직접 지급
결국 은행 대출도 어려워질 것”

조만간 각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월가가 CBDC 도입 시 은행권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은행업계 대표 단체인 미국은행연합회(ABA)와 미 은행정책연구소(BPI)는 최근 미국이 디지털 달러화를 발행할 경우의 잠재적 부작용을 거론하며 도입 연기를 주장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월 디지털 달러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백서를 발간하고 CBDC 도입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3월 CBDC 연구개발(R&D)이 긴급하다며 정부 기관들에 관련 연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ABA와 BPI는 CBDC가 일반 은행 예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예금이 줄어들 경우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CBDC 긍정

론자들은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CBDC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면 달러화의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계에서는 역효과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는 것이다.

ABA는 연준에 보낸 서한에서 “CBDC의 혜택이라고 알려진 것은 불확실하고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실제적이고 극심하다”고 밝혔다. BPI는 디지털 달러 도입 시 일반 은행들의 주요 자금원이 마를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CBDC가 은행 예금들을 빨아들이면서 미국 상업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대출 이용가능성을 심각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봤다.

현재 은행 등 금융권은 중앙은행 발행 화폐가 예금과 대출을 거치면서 예금통화를 늘리는 신용창조 기능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지만 CBDC가 도입되면 중앙은행 화폐가 개인별 전자지갑에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은행 등의 계좌를 거칠 필요가 없어지며, 따라서 신용창조 기능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달러 도입 후 은행들이 거래 중개 역할을 하더라도

고객의 CBDC 전자지갑에 예치된 돈은 은행이 대출에 쓸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고객 예금과 달리 CBDC 전자지갑 예치금은 연준의 직접적인 부채가 된다는 것이다.

ABA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CBDC 예치금 규모를 제한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전자지갑 계좌당 예치금을 2500달러(약 316만 원)로 제한해도 4460억 달러(약 564조 원)가, 1만 달러(약 1264만 원)로 제한하면 1조 달러(약 1264조 원)가 시중 은행 예금에서 각각 빠져나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미국보다 앞서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중앙은행 주도로 CBDC를 연구하거나 시범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에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등 안정성을 내세웠던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급락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면서 가상화폐 규제와 CBDC의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에서 3~5년 이내에 널리 사용되는 CBDC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고 가상화폐 전문매체 〈더블록〉이 전했다. 그는 5년 안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CBDC가 도입될 것인지 묻는 말에 “우리는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수준의 여러 실험을 하고 있으며, 아직 일반화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년 내라고 말해보자”면서 소매 분야보다 덜 민감한 도매 분야에서 진척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봤다. 다만 그는 어떤 국가의 CBDC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이에 동의하면서 “5년 안에 CBDC가 세계에 꽤 존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



tradeKorea.com



Global B2B e-Marketplace



연간 인콰이어리 수
57,000건



품목별 전문가의
1:1 밀착 지원



연간 방문자
812만명

바이어에게 어떻게 홍보를 할지 막막하시나요?
해외 바이어에게 거래 제안서를 받길 원하시나요?

우리 기업의 수출 첫걸음을 위해 홍보부터 바이어 발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온라인 수출 마케팅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 소개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거래제외서(C/L) 직접 발송

해외비즈니스 매칭
수출 주력 시장 및 신중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영문홈페이지 제작 지원
미시사이트 무료 제작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실시간 바이어 인콰이어리
정보 제공

빅바이어 상시 거래알선
IKEA, Watsons 등 연 36개사
빅바이어 소싱 지원

샘플 소액 결제 서비스
샘플 주문, 배송 등
소액결제 원스톱 지원

Tel | 1566-5114 E-mail | tradeKorea@kita.net

한국무역협회-하나은행
외환수수료 우대서비스



한국무역협회 tradeKorea.com과 하나은행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무역거래에 대한
수출입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계약 및 국내업체간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서비스 소개

- 우대 대상거래 : 수출입 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국내업체간 외환결제에 한함
- 이용절차 : ①tradeKorea.com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②신청서 작성 → ③신청결과에서 현재 상황 확인 → ④확인서 발급 확인 시 출력 후 하나은행 방문

■ 우대내용 서비스 문의 : 하나은행 1544-3000, 3500

구분	통상 수수료율	우대 기준율
당발송금 수수료	송금금액구간 별 5,000원~25,000원	건당 50%~80% 할인
타발송금 수수료	건당 10,000원	건당 50%~80% 할인
신용장통지 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50%~80% 할인
매입/추심 수수료	건당 20,000원	건당 30~50% 할인
신용장발행 수수료*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의 0.8~1.4%	건당 0.4%P 감면
신용장인수 수수료*	신용등급 별 발행금액의 1.4~2.0%	건당 0.8%P 감면

* 기업의 당행신용등급에 따라 적용요율과 우대율이 상이할 수 있음.

문의 한국무역협회 플랫폼 마케팅실
02-6000-4420

전세계 무역인의 온라인
원스톱 거래 네트워크
tradeKorea.com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주)필디앤씨

인도 상인을 모르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논하지 말라



3,000년 이어진 상인 카스트 DNA, 뺏속까지 상인집단,
돈을 불리는 것이 신이 부여한 사명이라 여기며 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

인도, 동남아, 중동을 넘어 미국, 영국 등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인도 상인, 그들의 성공비결은 무엇인가.

유대인, 화상과 더불어 세계 3대 상인집단,

이들을 모르면 G3(미국 · 중국 · 인도) 시대, 비즈니스를 논하지 말라.



- 인도 현지에서 인도 상인들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조사해 만든 인도 상인과 인도 경제에 대한 보고서
- 인도 상인의 기원부터 갈래, 특성, 현황, 나아가 그들의 삶과 철학까지 다룬 책

3000년 카르마가 낳은 인도 상인 이야기

저자 김문영 가격 18,000원

‘위구르 말살 새 증거 보도’에 중국-서방 갈등 확산 가능성

수용소 수감자는 최소 2884명
관리지침엔 “도망치면 사살하라”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를 없애려고 강제수용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이 부인해왔던 강제수용소 문제가 중국과 서방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BBC방송〉은 최근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 경찰이 해킹을 당해 유출한 위구르족 집단수용소 관련 자료를 대거 입수해 보도했다. 이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작성된 것들로 구금자와 주요시설 사진 수천장, 수용소 관리를 위한 경찰 지침 등이 포함됐다. 〈BBC〉는 이 자료를 올해 초에 입수해 전문가들과 협의해 진위를 확인한 결과, 진본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료에서는 수감자 최소 2884명의 신원이 사진으로 확인됐다. 수감자 중에는 70대 노인부터 15세 소녀까지 있었고 일부 무장 경찰이 곤봉을 들고 함께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이들의 수감 사유는 석연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BBC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무슬림 인구가 많은 국가를 방문했다는 이유 또는 이슬람 신앙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감금됐다. 가족사에 폭력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잡혀 온 여성도 있었다. 아들이 술, 담배를 멀리하다가 테러 혐의로 10년형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덩달아 구금됐다.

〈BBC〉는 이 같은 상황을 보면 집단수용소는 개개인을 탄압해 위구르 사회 전체를 흔드는 기구일 뿐, 중국이 주장하는 자발적 교육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신장에 있는 교육·훈련장은 사람들이 극단주의에서 해방되도록 돕는 학교”라고 2019년 주장한 바 있다.

서방 정부 당국자들과 싱크탱크는 신장 훈련소를 위구르족 역사, 문화, 종교를 없애려는 기구로 간주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민족말살 의미를 담아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논란을 ‘제노사이드(genocide)’로까지 불렀다. 집단수용소 시설 정보, 경찰의 관리지침 등에서는 그런 정황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BBC〉는 수용소가 사상 교육원이나 직업훈련원이라는 중국 주장과 달리 중범죄자 감옥과 같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용소 내 경찰은 수감자를 다른 시설이나 병원으로 옮길 때 의무적으로 눈을 가리고 수감과 족쇄를 채웠다. 수용소 내 전 지역에 무장한 경찰이 배치된 데다가 감시탑에 기관총과 저격용 소총이 설치됐고 탈출을 시도하는 수감자는 사살한다는 원칙까지 있었다.

이번 문건에서는 중국 정부가 테러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수천명을 정식 교도소에 보내면서 집단수용소를 비슷한 목적으로 나란히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BBC〉는 “위구르족 정체성, 문화, 이슬람 신앙을 거의 모조리(말살) 표적으로 삼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일부”라고 문건의 의미를 주장했다.

서방국들은 즉각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이 ‘제노사이드(종족 말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5월 24일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위구르족 학대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는 중국 정부 최고위층이 이를 승인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위구르족 집단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보도에 질겁했다”며 “억압과 구금, 종족을 말살하려는 체계적인 노력과 반인륜적 범죄가 중국 정부 최고위층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중국의 위구르족 학대 혐의에 대



멕시코 원정 분유 쇼핑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5월 24일 국경을 넘어 멕시코 티후아나의 한 매장에서 분유를 구입하고 있다. 분유 파동이 지속되자 일부 미국인들은 멕시코로 원정 쇼핑을 하고 있다. 【티후아나=AP/연합뉴스】

한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다. 안나레나 베어 북 독일 외무장관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독일 외무부는 전했다.

국제 인권 단체와 미국 등 서방국들은 신장 지역에서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위구르족 100만명 이상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폭로 등이 이어졌지만, 중국 정부는 무슬림이 다수인 지역에서 종교적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해 ‘직업 훈련소’를 운영한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BBC〉의 이번 보도와 서방국들의 비판은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중국 방문과 맞물려 나왔다. 바첼레트 대표는 5월 23일 중국에 도착해 신장위구르자치구 방문을 포함한 옛새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신장을 찾은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바첼레트 대표의 방문이 중국 정부의 선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바첼레트 대표는 2018년 취임 이후 신장 지역의 인권 상황 조사를 위해 제한 없는 접근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해오다 조사 형식이 아닌 우호 방문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신장행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서방 제재에도 루블화 가치는 왜 오를까

유로화 대비 7년 만에 최고 수준
“러, 고강도 환율방어 정책 영향”

달러·유로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5월 23일 수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루블화 가치가 안정됐다고 판단한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에 적용했던 환전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나섰다.

유럽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대비 루블화는

장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6.3% 오른 1유로당 58.75루블에 거래됐다. 유로화 대비로는 2015년 7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달러화 대비 가치 역시 전 거래일보다 4.6% 올라 1달러당 57.47루블을 기록했다. 루블화 가치가 가장 높았던 2018년 3월(1달러당 57.075루블) 수준에 근접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 경제 제재를 당했지만, 루블화 가치는 급등세다. 한때 1달러당

약 140루블까지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는 올해 들어 약 30% 상승, 전세계 화폐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로이터통신)는 전했다.

루블화의 가치 상승은 러시아 정부의 고강도 환율방어 정책의 영향이다. 러시아는 최대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원유 수출대금에 대해 루블화 결제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주민에게는 일정 기간 환전을 아예 금지했고, 외환 계좌 인출도 제한했다. 주식시장에 투자한 외국인인 보유주식 매도를 금지했다. 매도 대금을 환전해 러시아를 떠날 수 없게 한 조치다. 에너지 수출 기업의 수출 대

금 80%를 루블화로 환전하도록 의무화한 조치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러시아 재무부는 이날 루블화 상승을 계기로 수출기업의 외화 의무 환전 비율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루블화 가치가 너무 높아지면서 러시아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루블화가 안정화됐다.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환 유동성도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와 중국 일대일로 사업 참여 여파... 스리랑카, 국가부도 선언

한국무역협회 뉴델리 지부는 “지난 19일 스리랑카 정부가 7800만 달러의 국제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발표하고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는 4월 초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전까지 510억 달러 규모의 대외부채 상환을 미루겠다고 일사적인 디폴트를 선언

한 바 있으며 유예기간에도 이를 상환하지 못해 이번엔 최종 부도를 발표했다.

장기화한 코로나19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외화벌이의 핵심 사업인 관광산업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국가 부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프라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가 중국 부

채가 전체의 최대 20%까지 급증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채무 재조정 전까지는 대외채무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경고했다.

만성적인 외국환 문제로 야기된 스리랑카의 인플레이션은 4월 29.8%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식자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

비 평균 46% 이상 급등했다. 또한 평가절하를 거듭하고 있는 스리랑카 통화는 19일 기준 달러당 360LKR로 3월 10일의 254LKR에 비해 가치가 30%나 급락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지만 IMF는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정, 구조조정 등을 선결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은 물론 인접 국가인 인도와 일대일로 협력국인 중국에도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성 기자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tradeKorea.com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B2B전자상거래 사이트



Our Service

우리기업의 수출 첫걸음을 위해
홍보부터 바이어발굴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온라인수출마케팅의 길잡이



연간 인콰이어리 수
57,000 건



품목별 전문가의
1:1 밀착 지원



연간 방문자
1,200 만명

바이어 DB타겟 마케팅

희망국가/품목의 바이어 검색, 거래제의서(C/L) 직접발송

온라인 화상미팅

언택트 방식으로 실시간 화상 3자 미팅 매칭

해외비즈니스 매칭

수출 주력 시장 및 신흥시장 맞춤형 바이어 발굴 지원

빅바이어상시거래알선

IKEA, Watsons 등 연 36개사 빅바이어 소싱 지원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실시간 바이어 인콰이어리 정보제공

샘플소액결제서비스

샘플주문, 배송 등 소액결제 원스톱 지원

영문홈페이지 제작 지원

셀러스토어 무료제작

데스크의 창



미얀마 외환조치로 어려움 겪는 우리 기업들

요즘 미얀마 경제는 미얀마중앙은행(CBM)이 4월 3일 달러화 강제 환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 조치를 발표한 이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도가 강력했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BM이 규제 시행과 안내를 위임한 시중의 공식인증 라이선스 보유 은행에는 지금도 지침 적용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 조치의 정확한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외환 조치는 미얀마에 거주하거나 실체를 둔 모든 개인, 기업 및 기관의 달러화 보유 금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우선 미얀마에 연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은 조치가 처음 발표된 4월 3일 이후 송금받은 달러화를 CBM 지정 환율인 달러당 1,850짜트로 환전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고시 환율인 1,778짜트보다 높지만 실제 시중 거래 환율인 2,050짜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환전 시기나 방법도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계좌를 개설해준 주거래은행이 CBM의 지시를 받아 강제로 실시합니다. 미얀마 거주기간이 연 183일 이상이라면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CBM이 공정한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누구도 강제 환전 조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국 내 달러화 거래 역시 전면 금지돼 국내 달러화 송금이 중지됐으며 예외 적용 대상들마저 달러화 국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간 미얀마에서는 기업 간 국내 거래계약을 달러화로 체결하는 관행이 흔했는데, 현지화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달러 반출 통제입니다. 미얀마 밖으로 나가는 모든 달러화 송금 건이 신설된 외환감독위원회(FESC)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

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회수나 배당금 송금도 통제 대상이 됐으며 미얀마 수입업자들의 대금 결제 또한 앞으로는 모두 FESC의 건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수입대금 통제는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미얀마 금융당국과 상무부 모두 수입 억제를 통한 외환보유고 안정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입통제가 원칙이나 기준 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됐다는 점입니다. FESC는 규제 시행 초기 품목별 승인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대금 결제 요청을 무작정 반려하거나 보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경제 및 산업은 물론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솔린, 디젤유 등 유류 수입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4월 17일 저녁부터 업계에서는 유류 공급 중단과 재고 고갈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으며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일반인들에게까지 실상이 알려진 4월 19일경에는 전국으로 패닉이 확산됐습니다. 재고가 있다고 알려진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200m 이상 늘어기도 했으며 주유소들은 차량당 주유량을 제한하거나 아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전력난 때문에 디젤 발전기에 의존해 영업하던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인 혼란은 뒤늦게 FESC가 유류대금 결제 승인을 내리고 주유소 영업 재개와 주유량 정상화를 강제하면서 해소됐습니다.

이처럼 한차례 큰 위기를 넘기고 난 뒤에야 수입대금 승인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확정된 수입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크게 3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로 수입업자가 상무부에 수입 희망 품목을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 수입 라이선스(IL)를 획득해야 합니다. IL 심사는 이전부터 있었던 절차이지만 외환 조치와 더불어 더욱 엄격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에 따르면 우선 승인 대

상 품목은 1순위인 의약품 및 수술실용 의약품, 2순위 유류, 3순위 비료와 농약, 4순위 식품 원자재, 동물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 그리고 5순위인 원단, 철강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제한됩니다. 이들 품목 외에 완성차, TV, 냉장고, 휴대폰 등은 사치품으로 분류돼 승인이 어렵습니다. 자국 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만 사전 심사하던 기존의 IL 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IL 획득 이후에는 달러화 매입 승인이 더욱 어려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얀마투자위원회(MIO)에 등록된 외투기업이나 경제특구(SEZ) 입주기업 등 일부 예외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수입업자는 강제 환전 조치로 달러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하려면 FESC로부터 매입 승인을 받아 달러화를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매입 허용에도 농축산물, 의약품, 유류, 식용류, 비료 등 우선 승인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IL 우선 승인 대상과 유사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달러화 매입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현지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화장품을 사치품의 한 종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를 확보한 다음에도 FESC의 해외송금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미얀마 금융당국은 달러화 매입과 해외송금을 가급적 한꺼번에 승인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외송금 심사단계에서 검토되는 수출업체의 선적 완료 조건이 심각한 무역 애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품을 선적하기 전까지는 미얀마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규정은 미얀마 바이어들의 대외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최소 필수품을 제외한 수입의 전면 중단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으며 미얀마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현지 시장에서 선전해왔던 K-뷰티 제품과 생활 소비재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들은 IL 획득에 난항을 겪고 바이어의 달러화 지급 지연 및 미결제에 의한 피해도 예상됩니다.

미얀마 진출 기업들도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허용 품목의 범위가 너무 좁아 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나 판매용 재고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치 이후 원자재 수입 승인을 거의 받지 못한 상당수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중단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로 미얀마가 단기적으로 외환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벌어졌던 유류대란이 다른 품목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큰데, 미얀마의 생산 및 제조 역량만으로는 수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안화와 바트화로 결제되는 중국과 태국산 제품이 달러화로 이뤄지던 수입 상품 감소분을 얼마나 보완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미얀마 기업들도 나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어들은 역외에 계좌를 두고 달러화 결제를 하는 '훈디(Hundi)'를 더욱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어로 '신뢰'를 의미하는 훈디는 미얀마처럼 외환 리스크가 높은 나라의 무역상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거래 관행인데, 이번 조치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위안화와 바트화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환 조치는 달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훈디를 활용하기 어려운 미얀마 바이어들은 대체 통화로 눈 돌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중국 및 태국과의 국경무역이 활성화돼 우리 제품의 미얀마 수출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EU,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겨냥해 'REPower EU' 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중단 및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한 '리파워(RePower)EU'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통한 전쟁 자금원 차단과 EU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 절감, 공급망 다변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기존의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RRF)' 프로그램의 일부를 개정해 회원국의 RRF 프로그램에 '리파워EU' 챕터를 추가하는 형식이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 내용.

●에너지 소비 절감 = 장기적으로 EU 에너지 효율지침에 따른 2030년 9% 에너지 소비 감축 의무를 13%로 확대하고 단기적으로 소비자 절약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5%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경 등 재정조치와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등을 회원국에 권고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심각한 에너지 공급 교란이 발

생할 경우 비상조치로 우선 공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EU 공동에너지 소비 절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U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국 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가스 등의 공동 구매, 에너지 인프라 사용 최적화 및 대외 공급원 공동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 경험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국을 대신해 가스 구매 협상 및 계약을 실행할 '공동 구매 메커니즘' 발족과 회원국의 가스 공급망 다변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 'EU 대외 에너지 전략'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공급국과 장기적인 수소 및 기타 친환경 기술 협력 등 대외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보급 확대, 에너지 외교역량 강화 등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부문 정상화와 공급

망 안정화를 지원하고 향후 중요한 전기, 수소 공급국으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리파워우크라이나'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2025년까지 국내 태양광 발전 역량을 두 배 확대하고 2030년까지 600GW 발전 역량 확보를 위해 'EU 태양광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축 공공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패널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태양광 루프탑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히트 펌프 보급률 100% 확대와 지역난방 시스템의 지열 및 태양열 융합 발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재생에너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최우선 공공 이해관계 사항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환경 영향이 적어 간이 허가절차를 신속 적용할 수 있는 '고-투(go-to)'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2030년까지 EU 역내 1000만톤의 수소 생산역량 및 추가 1000만톤의 수소 수입원을 확

보해 운송 등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친환경 수소의 정의 및 생산과 관련한 2개의 이행입법을 발표할 예정이며 수소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추가적으로 2억 유로를 연구개발에 지원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바이오메탄 생산 역량을 35bcm으로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메탄 액션 플랜'을 제안해 바이오메탄 관련 산업 간 파트너십 및 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 및 운송 부문 화석연료 소비 감축 = 산업계의 친환경 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도입하고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수익을 '리파워EU' 계획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EU 태양산업연합'을 발족해 태양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운송 부문 탈탄소화 지원 = 운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 제고를 통한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운송 부문 친환경화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윤성 기자



이씨플라자가 수출bauer사업
우수 및 파워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창간 15th을 축하합니다!



구글 한국 파트너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bauer사업)

해외마케팅의 No.1 성공파트너



Go Beyond Korea!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성공파트너 이씨플라자가 함께합니다

- 검색엔진 / SNS 마케팅
- 바이어발굴, 현지 수출상담회
- 해외시장조사(일반·심층)
- 글로벌 B2B를 활용한 수출마케팅
- 수출브랜드개발
- 해외상품홍보지(무역전문지)
-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 해외전시회 참가 / 마케팅 대행
- 해외 수출입통관 데이터 실거래바이어·경쟁사 조사
- 종이카탈로그, 홈페이지, 쇼핑몰, 홍보동영상 제작

- ▶ 중기부, 산업부 수출bauer 사업 6년 연속 지정 수행기관
- ▶ 중기청 수출역량강화/수출기업화 18년 연속 수행기관
- ▶ 한국디자인진흥원 종합디자인전문회사(시각·제품·멀티) 등록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 및 방문컨설팅	서울 02-6952-4577 / 4573 ~ 4578
	부산 051-469-5105
	광주 062-655-4617
	E-mail. export10@ecplaza.net

이씨플라자 or 수출bauer

검색창에 '이씨플라자' 또는 '수출bauer' 을 검색해보세요!!

- ▶ 중기부, 산업부 수출bauer 우수·파워 수행기관 선정
- 내수기업 /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수출성장기업 / 수출강소기업 / 그린선도기업 육성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 정부 및 지자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T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 ▶ 데이터bauer 공급기관(판매/가공) 선정



서울 / 서울 강동구 성내로6길 50, Peace Center 1F
 부산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70, 강남빌딩 7F
 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73

Tel. 02-6952-4577 Fax. 02-482-0339
 Tel. 051-469-5105 Fax. 051-469-5104
 Tel. 062-655-4617

www.ecplaza.net / www.ecplaza.co.kr / design.ecplaza.net



알립니다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 한국관 모집

KOTRA와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는 올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리는 '2022 두바이 건축전(THE BIG5)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전시 품목은 건축 및 냉난방기기와 설비기자재 등이며 한국관 모집 규모는 25개사 내외다. 참가 기업에게는 부스 임차료·장치비·운송비와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3일까지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을 통해 신청 후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 전화 : 02-2193-4324
- 메일 : sky4u@ref.or.kr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KOTRA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올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뷰티 전시회 '코스모프로프 아시아(Cosmoprof Asia 2022)'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전시 품목은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네일케어 >아로마테라피 >목욕용품 >전문 미용기기 및 스파 샵 제품 등이며 한국관 모집 규모는 60개사 내외다. 참가기업에게는 >부스 임차료·장치비·운송비 >관심바이어 리스트 >현지 간담회 등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3일까지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을 통해 신청 후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 전화 : 02-785-3898
- 메일 : rootim@kcia.or.kr

●인천스타트업파크 Smart-X Global 참가기업 모집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및 인천 이천 예정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고자 '인천스타트업파크 Smart-X Global(포스코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 및 인천 이천 예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외 현장 사용성 및 현지 판매처 판로 개척 >수출상담 멘토링 >5000만 원 이내의 글로벌 진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20일까지 인천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문의 : 스타트업파크센터
- 전화 : 032-228-1210
- 메일 : nchm0930@itp.or.kr
- 홈페이지 : startupperk.kr

●중국 역직구 한국식품관 입점기업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내 농수산물품 기업의 온라인 B2C 거래 확대를 위해 중국 '티몰글로벌' 역직구 한국식품관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농림수산물품을 제조·수출하는 중견·중소기업 70여 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티몰글로벌 역직구 한국식품관에 3개 상품 무료 입점과 판매상품 대상 온라인 프로모션 등 통합마케팅을 지원한다. 역직구는 개인과 기업 간의 국경 간 온라인 B2C 거래를 통한 수출을 뜻하며 별도 인증 없이 대중 수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참가 희망 기업은 수출 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전화 : 02-2140-0732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관련)

●국가식품클러스터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기업의 연합홍보를 통한 판로개척·비즈니스 기회 제공 등을 위해 '2022년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 내 기업, 정부 선정 5대 유망 식품분야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내 박람회 >해외 박람회 >국내 바이어 상담회 >해외 바이어 상담회 >온라인 특별기획전 >수출용 홍보자료 제작 중 3가지를 선택해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1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유지지원부

- 전화 : 063-720-0578
- 메일 : biz@foodpolis.kr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AI >VR/AR >IoT >빅데이터 >바이오 테크 등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9월 2일부터 6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2022 IFA(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해당 전시는 CES, MWC와 함께 세계 3대 가전 박람회로 불리며, 지난 2019년 기준 50여 개국에서 약 1930개 글로벌 참가사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스케일업허브본부 C-LAB팀
- 전화 : 053-759-9653
- 메일 : juhyun@ccei.kr

●[서울] 해외 B2B 온라인 판로지원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서울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B2B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SBA x 알리바바닷컴 해외 B2B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B2B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수출 판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서울 중소기업 50개사 내외(뷰티&퍼스널케어, 식품 등)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 및 광고비 >기획전 행사 참가 >미니샵 운영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5월 31일까지 SBA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SBA 이커머steam
- 전화 : 02-2657-5702
- 메일 : limpio@sba.kr
- 홈페이지 : www.sba.seoul.kr

●[인천]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추가모집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 관내 중소제조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 내 군·구에 위치한 중소기업 34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 실소요비를 기업당 연간 1회 지원한다. 오프라인 전시는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전액과 통역비 50% 등을, 온라인 전시는 참가비, 주최사 제공 마케팅비와 샘플 운송비 등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27일까지 Biz-OK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마케팅지원센터
- 전화 : 032-260-0633
- 홈페이지 : bizok.incheon.go.kr

●[경기] K-의료·바이오 중등 수출상담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2022 경기 K-의료·바이오 중등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전시는 도내 바이오헬스 기업 10개사를 UAE 두바이(10월 18일)와 터키 이스탄불(10월 20일)에 파견해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기능성 화장품, 수면케어 등) 품목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9일까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 전화 : 031-359-6147
- 메일 : hannah@gbsa.or.kr

●[강원]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강원동동관 모집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강원 도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개최되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Arab Health 2023)' 강원 공동관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전시는 약 70개국에서 2000개사가 참가해 의료기기 제조 및 제조를 위한 관련 부품, 헬스케어 제품 등을 전시한다. 참가 기업에게는 부스임차, 비품신청 등 행정 지원과 공동관 참가기업 디렉토리 제작 등을 지원하며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기업지원팀
- 전화 : 033-760-6132
- 메일 : lsw@wmit.or.kr

- 홈페이지 : www.wmit.or.kr

●[충북] 충북농식품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사업

충청북도와 KOTRA충북지원단은 충북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농식품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충북 소재 농식품 기업 중 수출 실적이 없거나 직전 년도 1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초보 기업 1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아마존US >라자다 >소피 등 글로벌 온라인 마켓 플랫폼(택 1) 입점과 SNS 마케팅, 온라인 판촉전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12일까지 충북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CBGMs)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KOTRA 충북지원단
- 전화 : 070-4185-6949

●[충남] 2차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지역 자동차부품산업의 내수중심 산업현장을 타파하고 자동차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2022년 2차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충남 소재 자동차부품산업 및 전후방 산업 연계기업과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및 해외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국내외 인증·특허 획득 등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 문의 :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 전화 : 041-569-5722
- 메일 : sunhee.choi@ctp.or.kr

●[전남] 필리핀·인도네시아 시장개척 수출상담 모집

전라남도와 KOTRA광주전남지원단은 전남 내 우크라이나 사태 수출피해기업의 대체시장을 발굴하고 신남방지역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2022 필리핀·인도네시아 시장개척 수출상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남 소재 전년도 수출 20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1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장 임차 >통역 >항공료 등을 5859만 원 규모로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3일까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KOTRA 광주전남지원단
- 전화 : 062-369-8613
- 메일 : kotraj@kotra.or.kr
- 홈페이지 : www.jexport.or.kr

●[광주] 동남아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 지역 내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동남아 지역 시장진출 확대 및 수출판로 확보를 위해 '2022 광주광역시 동남아 온라인 무역사절단'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 소재 수출(예정) 중소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대만(타이베이) 등 동남아 현지 진출을 위한 >맞춤형 바이어 매칭 및 통역 >온라인 상품등록 지원 >중진공 수출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 참가 희망 기업은 6월 3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중진공 광주지역본부
- 전화 : 062-369-3051
- 메일 : aypark@kosmes.or.kr

● <한국무역신문>에서는 기관이나 단체, 지자체, 기업들의 행사, 이벤트, 모집 등의 공고를 접수합니다.
 ■ Tel : 02-6000-3124 Fax : 02-6000-3122
 ■ E-mail : wtrade07@gmail.com

복잡한 무역실무! 고민 말고,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해결하세요!

TradePro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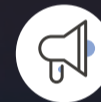
손쉽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입니다.



화상상담



채팅상담



오픈상담



AI자문

접속방법

Tradepro.kr



- 1) PC / Mobile / Tablet : tradepro.kr 바로접속!
- 2)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kita.net) 접속 후, TradePro 클릭!

상담분야



무역실무



관세/FTA/HS Code



국제계약/클레임



세무/회계



상표/특허



해외인증



외환/환리스크



온라인마케팅



창업컨설팅



지역전문가



물류전문가



기타분야